부산대학교 교수회

제2회 문창문예공모전
수상작 모음집

2026

문학과 그림으로 이어지는 부산대학교의 시간

차례

시

장원 〈천변에서〉 - 이찬희 3

우수 〈결정(結晶)〉 - 임한솔 5

가작 〈기항지(寄港地)의 가을〉 - 옥종훈 8

수필

장원 〈취미는 피아노입니다〉 - 강은교 11

우수 〈유난〉 - 김세은 14

가작 〈비가 와도 아름다운 텃밭을 본 적이 있는가〉 - 송은교 17

일러스트

장원 〈그날의 빛을 이어서〉 - 김태영 23

우수 〈Twisted Pieta〉 - 최주호 25

가작 〈시월이 오면〉 - 박채은 27

희곡·시나리오

장려상 〈레인보우하우스 503호에선〉 - 김성민 30

장려상 〈활공〉 - 김아름 51

소설

장려상 〈[비고: 미상]〉 - 윤예현 68

시

Poetry

시 | 장원

〈천변에서〉

이찬희

〈천변에서〉

이찬희

자꾸만 바깥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자꾸만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겠지 가문비나무의 가지 사이로 늙은 요정의 요술 가루가 떨어지고 잊힌 캐럴의 곡조가 구릉을 타고 넘실거려 삭인 감정만큼 나이테가 아물어가는 멍처럼 넓어지고 있을 때

무슨 생각해?

너를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할 때를 생각해,

너머의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 막아서는 게 없어도 부딪혀버리는 벽처럼 일력을 넘기는 어수룩한 손처럼, 말하지 못한 말들은 어김없이 개울이 되고 물수선과 강파래가 넘실거리는 저녁 천변에선 물살을 타고 버려진 풍경들이 서로의 모서리를 맞추고 있었지 마음처럼 번져가는 빛들을 바라보며, 나는 아직 마음에 대해 알지 못해도 이 문장을 적어버렸다는 게 부끄러웠어

이 사람과 저 사람을 이을 말이 생각나지 않는다

추억을 더 깁기 위해서는 잠시 얼굴을 가릴 옷깃이 필요한 법

바깥의 바깥이 안이 아닌 걸 알아서

나는 개미굴 옆에 쪼그려 앉아 말을 더듬는 연습을 했고

너는 가끔 빛의 형상이 되어 물속으로 비치는 듯해 물에 비친 우리의 얼굴이 너무 우스꽝스러워서 눈을 감아버리고 말았을 때 가슴에는 하야멀건한 눈이 뿌리처럼 차들고 여전히 나는 마음에 대해 모르지만 그 순수가 무서워서 풀썩 너를 안아버렸지, 힘없이 산란되어 이지러지는 반딧불이의 불빛들이 아픈 편지의 아름다운 시구를 읊기 시작하자 나에게 헌신해 주던 요정의 목소리를 까먹었다는 걸 깨달았지

그래도 우리,

소중한 것들을 영원에 빗댈 수 있는 우리가 되자

강바람의 알 수 없는 풍향이 우리의 뺨에 쌓여 가고 다하지 못한 말들이 개울에서 흘러넘쳐서 홍수가 났지 꼭 쥔 주먹에 난 손톱의 생채기에는 그만 울기로 하자 나는 너의 바깥에서 가끔 젖은 얼굴을 한 채 몇 번의 장마를 나다가 어느새 바깥으로 향하고 있었지 알 수 없는 것들을 끝끝내 모르더라도 나는 자꾸만 바깥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되었지만 지금도 어딘가에서 하루를 빚어내고 있을 너를 위해 꼭 다시 돌아올게, 그럴 거지만

돌아오지 않는다면 캐럴을 멈추어 주렴 그리움에 울컥 젖어도 흐느끼지 않을 수 있는 굳은 심장을 지닌 어른이 되어 영영 나를 잊어주길 바라

시 | 우수

〈결정(結晶)〉

임한솔

〈결정(結晶)〉

임한솔

어린 것들의 끝은 뾰족하다
당신의 몫은 아닌 애도가
당신으로부터 범람했을 때
아버지는 소년으로 쏟아져 내렸고
여과 없이 삼켜진 마음들은
우러러보이던 얼굴들을 마구 일그러뜨렸다
기어코 내려다보이게 했다
고개를 들면 안 될 것도 같았지만
들고 싶지도 않았다
아무도 가려주지 않는 형광등은 눈부시면서도 멀었고
그늘진 밑바닥은 아늑하면서도 가깝다
붙잡을 곳 없는 존재가
스스로를 악착같이 움켜쥐듯이
스스로를 멎게 하려고 나는
덜 깎은 손톱을 손바닥에 우겨넣는다
뾰족한 것들의 끝이 남긴 것들은 오목하다
할머니는 그런 나를 어른스럽다고 칭찬해 주신다
당신이 기특하게 여겼을 거라고도
나는 그 말을 손에 박히는 통증으로 이해한다
기억 속의 당신은 자주 어린 나의 손을 이끌어
함께 바닷가를 거닐곤 했는데
손마다 멀쩡하지 않은 손가락이 있었던 당신과 손을 잡는 일은
유년의 근심만큼이나 두루뭉술하고 헐겁다
추억을 들출수록 설움이 들썩인다 김소연,「풍선 사람」中
김소연,「풍선 사람」中
아무리 모난 것일지라도 수면 위에는 둥근 파문을 남기고
달팽이 더듬이 같은 참회들이 나를 비집고 나온다
들썩이는 부유물들
뻗어나가는 물결들

먼 곳의 파도가 될,
경계 밖으로 범람할,
부딪고 부서질,
기어코 포말을 남길 물결들
그게 아니면
잦아들고 가라앉고 말 것들
당신이 나를 무척이나 생각했다고 뒤늦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 뒤로 당신을 떠올릴 때면 괜스레
손바닥만 어루만지게 되고,
과묵한 사람들이 바닷가를 헤매고 있어요
그곳의 사람들은 당신의 걸음걸이를 하고 있네요
어쩌면 사랑하는 이들 앞에서 나는
당신의 미소를 머금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시 | 가작

〈기항지(寄港地)의 가을〉

옥종훈

〈기항지(寄港地)의 가을〉

옥종훈

투명해진 햇살이 빌딩의 유리창을 미끄러질 때
우리는 비로소 계절이 닻을 올렸음을 안다.
여름내 끓어오르던 잎맥의 맹렬한 소란들은
서늘한 바람 한 점에 조용히 제자리를 내어주고
길가에 뒹구는 낙엽들은 저마다 읽히지 못한 편지가 된다.
모든 것이 저물어가며 비로소 명징해지는 시간.
초록을 잃어버린 나무가 제 뼈대를 온전히 드러내듯
오래된 안부들은 가을의 정수리를 타고 내려와
잊혀진 기억의 밑바닥을 가만히 두드린다.
빈 의자 위에 내려앉은 오후 세 시의 그림자,
누군가를 기다리기엔 너무 늦었고
혼자 일어서기엔 아직 이른, 그런 가을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각자의 온도만큼 붉게 물들어갈 뿐이다.

수필

Essay

수필 | 장원

〈취미는 피아노입니다〉

강은교

"취미가 뭐예요?" 숟가락을 내려놓으려던 손이 잠깐 멈췄다. "피아노요." "오, 피아노 치세요?" "네. 어릴 때부터 쳤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음식 이야기가 다시 이어졌다. 나는 국물을 한 숟갈 떠먹었다. 그날은 그게 전부였다. 집에 돌아와 양치를 하다가 거울 속에서 손을 보았다. 칫솔을 쥔 손이었다. 문득 피아노 건반 위에 놓였던 손이 떠올랐다. 어릴 때 피아노 학원에서 돌아오면 현관에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피아노 뚜껑을 열고 의자에 앉았다. 한 곡을 치고 나면 다른 곡을 찾았고, 칠 게 없으면 건반을 하나씩 눌러 보았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한두 시간이 지나 있었다. 학교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었던 날이면 건반을 평소보다 세게 눌렀다. 한 곡을 끝까지 치고 나면 속에 남아 있던 것이 조금 가라앉았다. 지금도 가끔 피아노를 친다.

며칠 뒤, 오빠가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가 방 밖에서 들렸다. "우리 동생?" 잠깐 뜸이 있었다. "스태킹 잘해." 나는 방 안에서 웃었다. 스태킹을 처음 본 건 중학교 3학년 때였다.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사람이 컵을 쌓고 있었다. 컵 세 개를 올렸다가 나누고, 손을 옮겨 다른 컵을 쌓았다. 컵이 올라갔다 내려오는 사이 손은 쉴 틈 없이 움직였다. 화면 밖에서 보고 있는데도 손끝이 저릿했다. 내가 하면 몇 초까지 나올까.

결국 스태킹 컵 세트를 샀다. 처음에는 컵이 손끝에서 비껴 나갔고, 쌓아 놓은 컵이 무너졌다. 다시 세웠다. 18초. 조금만 더 하면 줄어들 것 같았다. 10초대에 들어갔다. 9초. 8초. 7초. 타이머는 0.001초 단위까지 보여 주었다. 양손을 컵 위에 올렸다. "레디, 셋, 고." 손끝에 플라스틱의 감촉이 느껴졌다. 왼손이 먼저 움직이고 오른손이 따라갔다. 컵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손이 교차했다. 숨을 어디서 쉬었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7.203초. 다시 컵을 세웠다. 6.981초. 그러다 어느 날, 5.998초. 화면에 찍힌 숫자를 한참 바라봤다. 손을 내려다봤다. 숨을 그제야 크게 내쉬었다. 심장이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다. 방문 밖에서 엄마가 밥 먹으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대답하는 것도 잊은 채 다시 기록을 확인했다. 5.998. 컵을 내려다봤다. 다시 했다. 6.112초. 나는 컵을 다시 세웠다. 한 번만 더. 누가 시킨 것도, 상이 걸린 것도 아니었다. 그냥 숫자가 줄어드는 게 좋았다.

공부를 하다 말고 컵 앞에 서는 날이 늘었다. 이 분량만 끝내고 스태킹 해야지, 생각하면 책이 빨리 넘어갔다. 주말이면 늦게 일어나던 내가, 워크숍이 있는 날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컵을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다. 친구들은 몇 번 해 보고 금방 내려놓았지만, 나는 내려놓지 않았다. 밤에는 큰 컵을 꺼내기 어려웠다. 집 안이 조용해질수록 컵 부딪히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침대에 누워 이불 위에 손을 올렸다. "레디, 셋, 고." 컵은 없었다. 그래도 손은 컵을 잡을 때처럼 움직였다. 올리고, 나누고, 다시 쌓았다. 이불은 움직이지 않았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그래도 다시 처음부터 했다.

학교 체육 수업에서 스태킹을 하게 된 뒤, 선생님의 권유로 부산 대표 선발전에 나갔다. 대회장에서 부산 대표로 뽑혔다는 말을 들었다. 집에 와서 방문을 열었다. 방 한쪽에 컵이 보였다. 처음 샀을 때의 매끈한 표면에는 자잘한 기스가 나 있었고, 컵에 새겨진 마크도 군데군데 지워져 있었다. 나는 그걸 한동안 바라봤다. 얼마 뒤, 국가대표가 되었다.

나중에 오빠가 친구들에게 나를 소개할 때면 말했다. "우리 동생 스태킹 잘해." 어느 날, 누

군가 나를 소개하며 말했다. "얘 피아노 잘 쳐." 나는 잠깐 멈췄다. 이상하게도 두 말이 모두 나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 순간 스태킹을 처음 시작하던 날이 떠올랐다. 그때 내가 궁금했던 건 단순했다. 내가 하면 몇 초까지 나올까.

"무슨 과예요?" "의생명공학과요." "취미는요?" "피아노요." "앞으로 뭐 하고 싶어요?" 이번에는 대답이 바로 나오지 않았다. 주변에서는 다른 대화가 계속되고 있었다. 누군가 웃었고, 누군가 잔을 부딪쳤다.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연구원이라는 말이 떠올랐다가 사라졌다. 테이블 위에 놓인 손을 내려다봤다. 상대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웃었다. 얼마 뒤 누군가 다른 이야기를 꺼냈고, 질문은 지나갔다.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나는 머릿속에서 내 모습을 몇 개 꺼내 본다. 이건 너무 거창하고, 이건 설명하기 어렵고, 이건 아직 잘 모르겠고… 그러다 상대가 듣기 편한 답 하나를 고른다. 그렇게 말을 고르는 사이, 시작도 하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씩 정해 놓는다.

그런데 스태킹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달랐다. 그때 내가 알고 싶었던 건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아니었다. 손이 늦으면 영상을 돌려 봤다. 기록이 나오면 다시 했다. 밤에는 컵 없이 이불 위에서 손을 움직였다. 내가 하면 몇 초까지 나올까. 그 질문 하나였다. 5.998초가 나왔다. 그리고도 컵을 내려놓지 않았다. 그때는 손이 먼저 움직였다. 해 보고 나서야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알았다. 지금은 다르다.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먼저 묻는다. 내가 좋아하는 것인지, 잘할 수 있는 것인지, 앞으로 할 만한 것인지. 그렇게 묻고 나면, 가보기도 전에 가지 않을 길이 생긴다. 그게 꼭 나쁜 일일까. 예전보다 나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조금 더 잘 알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가끔은 그것과 겁내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다. 잘못 고르지 않으려다 아예 고르지 않은 것은 아닌지. 그러고 보면 취미를 말할 때만 그런 것도 아니었다. 전공을 선택할 때도, 하고 싶은 일을 말할 때도 비슷했다.

"취미가 뭐예요?" 나는 잠깐 생각했다. "피아노요." 그 말을 하고 나면 가끔 궁금해진다. 말하지 않은 나는 어디에 남아 있을까. 숟가락을 들었다. 국물을 한 숟갈 떴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식탁 위에 손을 올렸다. 식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손은 한 번 더 움직였다.

수필 | 우수

〈유난〉

김세은

유난

나는 마음이 얌전한 사람은 아니다. 어쩌면 잔잔할 때가 오히려 드물다. 쉽게 벅차오른다. 쉽게 분노한다. 쉽게 운다. 작은 자극에도 끓어올랐다가 얼어붙었다가 다시 녹아내리기를 반복한다. 남들은 금방 털어버리는 일들도 내게는 오래 머무른다. 이미 끝난 대화를 몇 번이고 되감아보고, 그때의 표정과 말투를 다시 떠올리다가 뒤늦게 상처받기도 한다.

이런 성격은 주변 사람들을 당황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남들은 흘려말하고 흘려들을 말이나 행동들도 나는 붙들고 잘근잘근 곱씹어 기어이 상처받으니. '참 울 일도 따로 있다.', '그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뱉은 말인데 왜 그래.', '피곤하게 산다.' 같은 말들을 숱하게 들었다. 난 그들에게 필요 이상으로 유난스러운 사람이었다.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나는 내 감정의 정당성을 증명하려고 했다. 내가 이 정도로 속상한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그 사람이 한 말은 생각보다 무례했다고, 누구라도 내 처지였다면 비슷하게 느꼈을 거라고 설명하고 싶었다. 의식한 뒤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나는 "솔직히", "인간적으로", "그치?" 와 같은 어구들을 자주 사용한다. 어쩌면 이 습관은 단순한 입버릇이 아니라 내 감정이 과하지 않다고 미리 변호하려는 말일지도 모른다.

무엇보다 이 성격은 나 자신을 할퀸다. 내 유난스러움이 나를 잠들지 못하게 만드는 밤들은 무수히 많았다. 어설프게 퍼붓는 사랑만 할 줄 아는 내가 받아들이기에 벅찬 것들이 세상에 넘쳐났다. 묻혀버리는 배려와 보답받지 못하는 애정. 나에게는 중요했지만 상대에게는 그렇지 않았던 관계들. 분명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에게는 그 최선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던 사실을 경우들. 세상엔 그런 마음도, 그런 관계도 얼마든지 존재하는 거라고 다시금 깨닫는 그런 밤마다 나는 무던함이 간절한 소원이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를 하루 종일 곱씹지 않고, 지나간 관계는 지나간 일로 놓아줄 수 있는 무던함. 사랑이 돌아오지 않으면 아쉽지만 그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내 머릿속에선 어느새 무던함이 성숙함과 같은 말이 되어 있었다. 자연스레 '미숙함'이라는 이름의 반대편에는 내가 놓였다. 쉽게 흔들리고, 오래 흔들리고, 끝난 일까지 끌어안는 사람. 그런 나를 미숙하다고 생각했고, 하루빨리 어른스러워지고 싶다고 주문처럼 되뇌었다.

하지만 가끔 상상한다. 생에 남은 날들 중에 오늘이 내가 가장 무던한 날이면 어떡하지. 나는 정말 괜찮아지고 있는 걸까. 아니면 앞으로 살아가면서 지금보다 더 많은 일을 겪고, 더 많은 관계를 잃고, 더 많은 마음을 포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무뎌지게 되는 걸까. 지금 내가 그토록 원했던 무던함이 실은 성숙함이 아니라 단지 덜 다치기 위해 감각을 조금씩 닫아가는 일이었다면 어떡하지. 물론 유난스럽다고 해서 더 깊이 사랑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무던한 사람이 나보다 덜 사랑하는 것도 아니다. 쉽게 우는 사람이 더 다정한 것도 아니고, 오래 상처받는다고 해서 그 상처가 더 고귀해지는 것도 아니다. 때로 내 유난은 분명 주변 사람을 지치게 하고, 이미 끝난 일에 매달리게 하고, 필요 이상으로 나를 소모시킨다. 고쳐야 할 것은 고쳐야 한다.

다만 이제는 조금 구별해보고 싶다. 내가 없애고 싶은 것이 정말 '유난'인지, 아니면 유난 때문에 겪는 고통인지. 상처에 오래 머무르는 버릇은 조금 줄이고 싶다. 모든 관계에 내 마음만큼의 마음을 요구하는 일도 하지 않으려 노력하자. 상대가 나와 다르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도 배워야 한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까지 중

요하지 않은 척하고 싶지는 않다. 내게 아픈 일을 아프지 않은 일로 만들어가면서까지 어른이 되고 싶지는 않다.

생각해 보면 '유난'이라는 말도 묘하다. 혼자서는 성립하기 어려운 말이다. 누군가 울었기 때문에 유난인 것이 아니라, '그 정도 일에는 그만큼 울지 않는 것이 보통'이라는 기준이 먼저 존재해야 그 사람을 유난스럽다고 부를 수 있다. 누군가 관계 하나를 오래 붙들었다고 해서 그 자체로 유난인 것이 아니라, '그 관계는 이제 그쯤 놓아도 된다'고 여기는 시간이 먼저 있어야 한다.

유난스러움이 상대적인 성질이라는 것을 알게 된 지금 다시 생각건대, 결국 나는 바뀌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바뀌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사람에게 치이고 사랑 때문에 부서지는 날이 수두룩할 것이다. 그렇더라도 사람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일은 나에게 삶을 대하는 중요한 방식이다. 내가 유일하게 알고 있는 사랑이라고까지 말하면 조금 거창할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의 나는 다른 방법을 잘 알지 못한다.

그러니 앞으로도 어느 정도는 유난인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한다. 내가 지키고 싶은 것은 상처받는 능력 그 자체가 아니다. 밤새 잠들지 못하고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습관도 아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남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이유만으로 곧장 하찮게 만들지 않는 마음. 다른 사람의 감정을 쉽게 '그 정도 일'이라고 잘라 말하지 않는 마음. 누군가 내게 건넨 애정을 너무 빨리 당연한 것으로 만들어버리지 않는 마음. 아마 내가 지키고 싶은 유난은 그런 것에 가깝다.

살아가다 보면 삶에 조금씩 마모되어, 언젠가는 나에게도 타인의 감정이 유난스러워 보이는 순간이 올 것이다. 어떤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별것 아닌 일로 며칠을 울고, 끝난 관계를 붙들고, 이미 오래전에 지나간 말을 되씹는 모습을 보며 나도 모르게 '그만 좀 하지'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른다. 그때를 경계하고 싶다. 내가 견딜 수 있었던 일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견딜 만한 일이라고 말하지 않기를. 나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일이 누군가에게는 오래 마음에 남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내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감정을 마주했을 때에도 그 마음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무게와 사정이 있을 수 있음을 생각하기를. 무엇보다 내가 느끼는 방식만을 사람 마음의 '적당한' 크기로 여기지 않기를.

그러니 나는 온 힘을 다해 나의 유난스러움을 지키자고 다짐한다. 정확히는, 그 안에서 지킬 것과 버릴 것을 계속 골라내며 살아가고 싶다. 내 곁의 나를 닮은 사람이 자기 성격에 짓눌려 힘들어할 때, 그 마음을 덜어내거나 고쳐야 한다고 말하기보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오래 기억해주는 사람으로 늙고 싶다. 그리고 기도한다. 부디 남은 날들을 살아가는 내 마음에도 내가 또 서툴게 마음을 퍼부어 사랑할 사람들이 머물러 있기를. 그 사랑 때문에 몇 번 더 다쳐야 하더라도, 다치지 않기 위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되지는 않기를.

수필 | 가작

〈비가 와도 아름다운 텃밭을 본 적이 있는가〉

송은교

비가 와도 아름다운 텃밭을 본 적이 있는가

부산대학교 대기환경과학과 송은교

고등학생 때 나는 자주 그 길을 지났다. 어린이집 담장 옆에는 작은 텃밭 하나가 있었다. 흙은 고르게 다져져 있었고, 작물들은 줄을 맞추어 서 있었으며, 낮은 나무 울타리는 그 안과 밖을 얌전히 나누고 있었다. 화려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방치되어 있지도 않았다. 그저 누군가 매일 한 번쯤은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였다.

나는 그 앞을 지나며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다. 잘 가꾸어진 것은 대개 눈에 띄지 않는다.

어느 날 비가 왔다.

비가 그친 뒤, 나는 처음으로 그 텃밭 앞에 오래 서 있었다.

흙은 여기저기 패여 있었다. 잎에는 흙탕물이 말라붙기 시작했고, 곧던 줄기 몇은 한쪽으로 몸을 기울이고 있었다. 바닥에는 떨어진 잎과 꽃잎이 붙어 있었다. 어제까지 가지런했던 줄은 더 이상 가지런하지 않았다.

망가졌다.

조금 더 바라보고 있으니 그보다 거친 말 하나가 뒤따랐다.

모욕.

텃밭이 무엇을 잘못한 것도 아닌데.

비는 누가 이 흙을 다졌는지 모른다. 어떤 싹이 며칠을 기다린 끝에 겨우 고개를 내밀었는지도, 작은 줄기 하나를 세우기 위해 누군가 몇 번이나 허리를 굽혔는지도 모른다. 그런 사정은 비의 것이 아니다. 비는 그저 내린다.

그 무심함이 야속했다.

하지만 비가 한 번도 오지 않는 텃밭은 오래 살아 있을 수 없다. 흙은 마르고, 잎은 처지고, 끝내 내가 아름답다고 여겼던 모양도 사라질 것이다. 줄기를 눕히는 것과 뿌리를 살리는 것이 같은 물에서 일어난다. 메마른 흙을 적시는 비와 흙 자체를 쓸어가는 비에도 우리는 같은 이름을 붙인다.

필요한 것과 해로운 것이 같은 이름으로 내린다는 사실은 어딘가 부당했다. 그러나 하늘에는 부당함도 없었다.

구름에는 분노가 없다. 빗방울은 어느 줄기를 눕히고 어느 잎을 남길지 고르지 않는다. 구름 속의 물방울은 서로 부딪치고 자라며, 충분히 커진 것은 결국 지상으로 떨어진다. 그 과정 어디에도 텃밭의 사정은 들어 있지 않다.

나에게는 사건이었다.

하늘에게는 현상이었다.

사건에는 사연이 있다. 이유를 묻고, 원망할 대상을 찾고, 때로는 책임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상은 대답하지 않는다. 하늘은 변명하지 않았고 사과하지도 않았다. 애초에 그럴 이유도 없었다.

그런 하늘 아래에서 텃밭 역시 아무 말이 없었다. 흙탕물이 튀었다고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줄기가 기울었다고 체면을 잃지도 않았다. 바닥에 잎이 떨어졌다고 어제보다 못한 텃밭이 되었다고 선언하지도 않았다.

모욕이라고 부른 것은 나였다.

나는 씨앗이 줄에 맞추어 심어진 모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흙은 울타리 안에 머물렀고, 줄기는 되도록 곧게 서 있었다. 누군가 그렇게 만들어놓은 모양이 흐트러지자 텃밭 자체도 함께 망가졌다고 여겼다.

그러나 비는 울타리를 읽지 못한다. 여기까지가 텃밭이고 그 너머부터는 아니라고 사람이 그어놓은 선도, 어느 줄이 반듯하고 어느 줄이 어긋났는지도 알지 못한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흘렀고, 흙은 그 물을 따라 움직였다. 안에 있던 것은 밖으로 밀려나고 바깥의 물은 안으로 들어왔다.

비가 무너뜨린 것은 정말 텃밭이었을까. 아니면 텃밭은 이러해야 한다고 내가 그어놓은 선들이었을까.

비가 지나간 뒤 초라해진 것은 텃밭이었는지, 세계가 내가 세운 질서를 조금쯤 존중해주리라는 믿음이었는지 분명하지 않았다.

얼마 전까지 잎을 두드리던 물은 어느새 잎 위에서 사라져 있었다. 흙이 그것을 머금고 있었다.

줄기를 눕힌 바로 그 물이 흙 사이로 스며들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뿌리가 물을 빨아들이고 있었다. 바깥에서 텃밭을 때리던 비가 어느 순간 텃밭 안에 머무는 물이 되었다.

그렇다고 비에게 감사할 이유가 생긴 것은 아니었다. 떨어진 것은 실제로 떨어졌고, 꺾인 것

은 꺾였다. 나중에 물이 되었다는 이유로 그 일이 없었던 것이 되지는 않는다. 이미 내린 비를 내리지 않았던 일로 돌려놓을 수도 없었다.

물은 흙 속에 남았다.

바닥에는 떨어진 꽃잎이 붙어 있었다. 떨어졌다고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위에는 아직 자라날 것들이 있었고, 아래에는 이미 지나간 것들이 놓여 있었다. 한 뼘도 되지 않는 흙 위에 서로 다른 시간이 포개져 있었다.

떨어진 꽃은 다시 줄기에 붙지 않는다. 다시 핀다 해도 그것은 다른 꽃이다.

그래서 '다시 예전처럼'이라는 말은 텃밭 앞에서 조금 어색해졌다. 흙의 위치는 달라졌고, 없어진 것도 있으며, 새로 들어온 물도 있었다. 어제의 모습을 그대로 되돌려놓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같은 텃밭이라고 부른다.

달라졌다는 사실이 곧 더 이상 그것 자신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었다.

하늘에서 비가 그쳤다고 땅에서도 끝난 것은 아니었다. 웅덩이는 남아 있었고, 흙은 축축했으며, 몇몇 줄기는 여전히 누워 있었다. 하늘에서는 이미 지나간 비가 땅에서는 한동안 더 머물렀다.

구름 사이로 빛이 들었다.

패인 흙이 먼저 선명해졌다. 기울어진 줄기와 바닥에 붙은 잎도 빗속에 있을 때보다 또렷했다. 밝아졌다고 해서 흐트러진 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빛은 감추어주지 않았다.

오히려 보이지 않던 것을 드러냈다. 비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았고, 빛 역시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았다. 그러나 밝은 곳에 놓인 것에는 곧 이름이 붙었다. 망가졌다고, 초라하다고, 전보다 못하다고.

어쩌면 비보다 늦게 도착하는 모욕도 있는지 몰랐다. 흐트러진 한 부분을 오래 바라보다가 그것을 전체의 이름으로 바꾸어 부르는 눈에서 시작되는 것.

그러나 바로 그 빛이 기울어진 잎 위에 머물고 있었다.

흐트러진 모습을 드러내는 빛과 잎을 살아 있게 하는 빛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었다. 비가 줄기를 눕히면서도 흙 속으로 스며들었듯, 빛 역시 숨길 것을 드러내면서 식물에게 닿았다. 자연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내가 그어놓은 선처럼 깔끔하게 나누어주지 않았다.

그 사이에도 흙은 물을 품고 있었다. 뿌리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남아 있었고, 기울어진 잎에도 빛은 닿았다. 떨어진 것은 떨어진 자리에, 남은 것은 남은 자리에서 저마다의 시간을 지나고 있었다.

텃밭은 자신이 회복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다. 더 강해졌다고 자랑하지도 않았고, 이번 비가 무엇을 가르쳐주었는지 설명하지도 않았다. 젖은 흙은 물을 머금었고, 잎은 빛을 받았다.

내가 망가졌다는 말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동안에도 텃밭의 시간은 멈추지 않았다.

흙은 여전히 패여 있었고, 줄기는 여전히 조금 기울어 있었다. 떨어진 것들은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렇다고 그날의 텃밭을 어제의 모습 하나와 견주어 전부 설명할 수도 없었다.

비가 오기 전의 가지런함은 아무 설명 없이 아름다움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비가 지나간 뒤의 흐트러짐에는 너무 쉽게 망가졌다는 이름을 붙였다.

그 구분은 너무 빨랐는지도 모른다.

젖은 흙 위에는 떨어진 잎이 있었다. 그 아래로 물은 천천히 스며들고 있었고, 기울어진 줄기의 한쪽 잎에는 빛이 걸려 있었다.

바람이 아주 조금 불었다.

잎이 흔들렸다.

그뿐이었다.

일러스트

Illustration

일러스트 | 장원

〈그날의 빛을 이어서〉

김태영


유신·독재
물러가라!
민주주의를
수호하라
1979. 10. 16. ~ Today.

일러스트 | 우수

⟨Twisted Pie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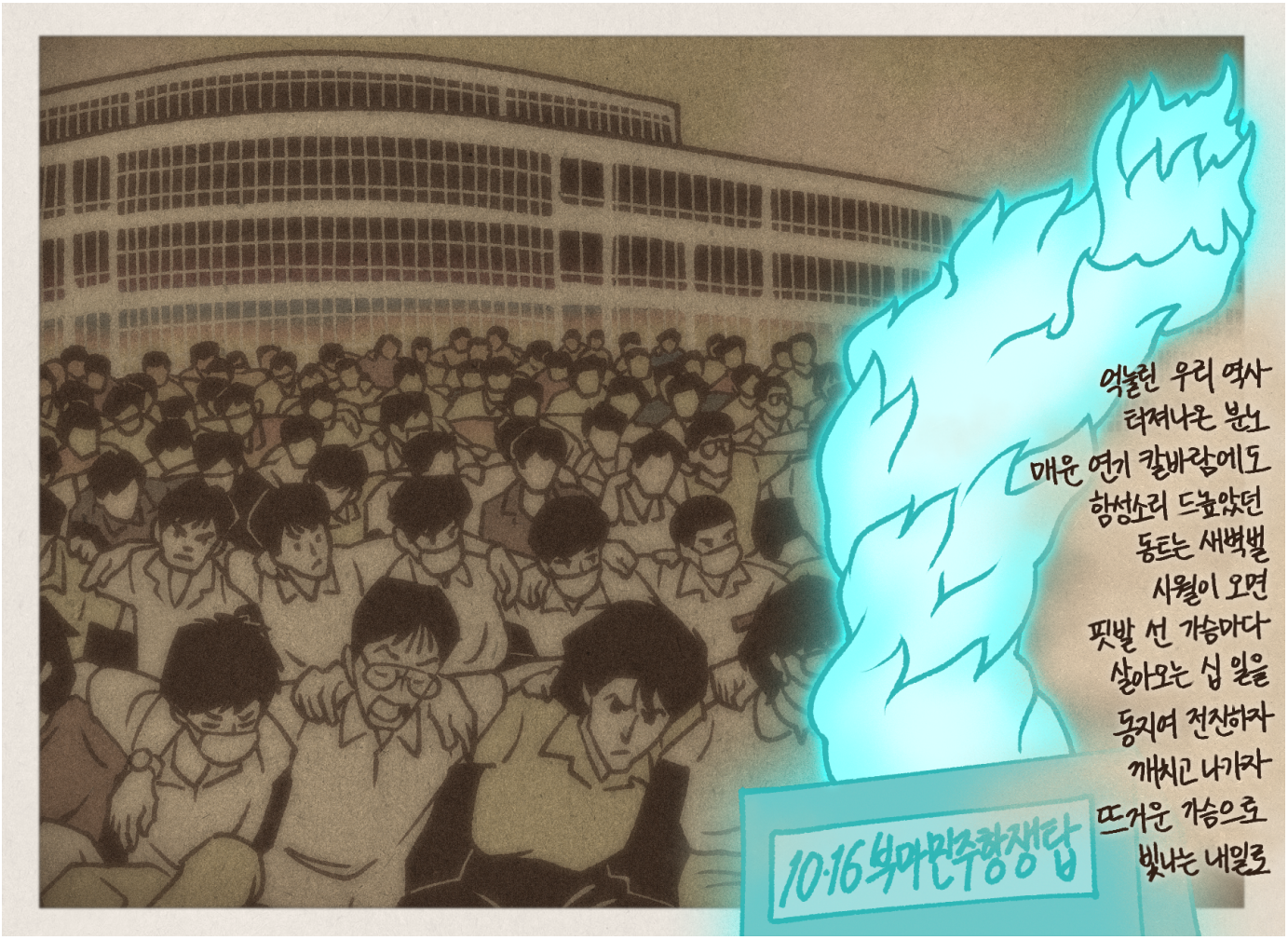
최주호


K.O.!

일러스트 | 가작

〈시월이 오면〉

박채은


억눌린 우리 역사
터져나온 분노
매운 연기 칼바람에도
함성소리 드높았던
동트는 새벽빌
시월이 오면
핏발 선 가슴마다
살아오는 십 일을
동지여 전진하자
깨치고 나가자
뜨거운 가슴으로
빛나는 내일로
10·16 부마민주항쟁탑

희곡·시나리오

Drama / Screenplay

희곡·시나리오 | 장려상

〈레인보우하우스 503호에선〉

김성민

〈레인보우하우스 503호에선〉

김성민

#0. 프롤로그

조명 in.

고개를 빼꼼 내놓고 있는 진수와 수아가 보인다.

진수 : 와 사람들 진짜 많이 왔다...

수아 : 내가 홍보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야, 우리 보이겠다. 너 얼른 나가!

수아, 진수를 무대 중앙으로 밀친다.

진수, 무대 안내 인사를 한다.

진수가 박수를 요청한 뒤 퇴장하면, 공무원 복장을 입은 기현과 민지가 집에서 나온다.

기현 : 민지야, 준비됐어?

민지 : 응 당연하지.

기현 : 근데, 나 할 말이 있는데...

갑작스럽게 암전.

기현 : 아, 진짜 중요한 말이었는데, 일단 시작하자!

#1.

보름달 조명과 함께 무대 전체에 조명이 들어온다.

집주인 아줌마랑 같이 들어오는 민지, 손에 연극 대본을 들고 있다.

무대 한쪽에 조명이 들어온다.

민지와 집주인 아줌마가 같이 들어온다.

집주인 아줌마 : 현관 비밀번호는 #7777이야. 여기 사는 사람들 다 잘 되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정한 거야 호호. 아무한테나 말하면 안 되는 거 알지? 어머 근데, 아가씨 왜 이렇게 이뻐~ 아유 그냥 데려다가 며느리 삼고 싶네. 저기 뭐 탈렌트 준비해야 되는 거 아냐?

민지 : 하하... 네, 저 사실 배우... 지망생이에요.

집주인 아줌마 : 어머 어쩜 좋아, 이거 사인이라도 받아놔야 하는 거 아냐? 나중에 저기 뭐야 그, 잔지현인가 걔처럼 되는 거 아닌가 몰라~ 얼른 들어가서 짐 정리 하고, 응? 푹 쉬어요. 아유, 잘 됐으면 좋겠다.

집주인 아줌마, 퇴장한다.

민지 : 감사합니다! (집 위로 올라간다.) 베란다! 그래! 내가 이거 때문에 여기 살고 싶었던 거지! (하늘을 바라보며) 우와... 여기는 별도 진짜 잘 보이네. 나도 별이 되고 싶다... 별은 저기 저렇게 가만히 떠 있기만 해도 세상 사람들이 다 봐 주고, 아름답다고 해 주잖아.

어디선가 기타 소리 한 번 들려온다.

민지 : 나도... 언젠간 저런 존재가 될 수 있겠지?

기타 소리가 연이어 들려온다.

민지 : 어...? 나 영화 속에 들어 온 건가?

초록색 집에 조명이 켜진다.

진수가 엉성한 멜로디로 노래를 부른다.

민지 : (놀랐다가) 깜짝이야! 누구세요...?

진수 : 흠...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이시죠?

민지 : 네...

진수 : 저 박진수에요.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천재... 싱어송라이터랄까?

민지 : 아... 하하. 전 주민지에요. 나이는 25살이에요. 여기... 503호에 오늘 이사 왔어요.

진수 : 진짜요? 야 얘들아! 우리랑 동갑이래!

고요하다.

진수 : 야 이 새끼들아! 대꾸 좀 해봐! 이제 안 숨어도 돼!

전체 조명이 켜지면서 엉성하게 숨어있던 기현, 수아, 힘찬이 보인다.

수아 : 봐봐, 내 말 맞지? 딱 우리 또래처럼 생겼다니까?

진수 : 여기 다 민지씨랑 동갑이니까 말 편하게 해요.

민지 : 어... 그래.

수아 : 난 이수아야. (망원경을 만지작거린다.)

힘찬 : 엄힘찬이야.

기현 : 난 성기현이야. 야, 근데 이런 거 이제 그만 하면 안 돼?

민지 : (부끄러워 하며) 아니 근데, 그럼 아까 나 혼잣말한 것도 다 들었단 거네?

힘찬 : (놀리는 투로) 무슨... 별이 되고 싶단 얘기는 들었던 거 같은데, 그게 혼잣말이었어? 사람 입에서 그렇게 오글거리는 말이 나올 수 있나 해서 안 믿었는데.

수아 : 과학적으로 사람이 별이 될 순 없긴 하지. 별이 되려면 분자운의 핵을 형성한 후에 원시별로 성장해야 하는데, 이 때 질량이 핵심 변수기 때문에...

진수 : (기타를 치고 있다가) 맥심 분수가 뭐야?

기현 : 자기소개 끝났으면 나 들어가서 공부해도 되지?

힘찬 : 야 성기현, 너 오늘 무슨 날인지 몰라?

기현 : 나 시험 진짜 얼마 안 남았어. 아빠가 이번에도 떨어지면 그냥 방 빼래.

민지 : 아니, 그래서, 너희 지금까지 여기서 뭐 하고 있던 거야?

진수 : 하늘을 봐봐.

민지 : 하늘은 왜?

힘찬 : 우리는 보름달이 뜨는 날마다 여기서 이렇게 모임을 가져. 그동안 각자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뭘 했는지 서로 얘기하면서 동기부여도 해 주고. 뭐, 힘들게 한 사람들 뒷담화도 좀 하고.

민지 : 우와 진짜? 낭만적이다... 너무 마음에 들어!

기현 : 낭만은 무슨 낭만이야. 그냥 시간 낭비하는 거지. (담배를 꺼내 핀다.)

진수 : 야! 너 여기서 담배피지 말라니까? 너 때문에 우리 건강이 얼마나 나빠지는지 알아?

기현 : 아 그래서 전자담배 피잖아.

수아 : 전자담배에 니코틴 성분이 일반 담배보다 10배 이상 들어 있다는 건 알고 말하는 거지? 니코틴은 혈압 상승과 혈관 수축 등 심혈관계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민지 : 근데, 너희 어쩌다가 이런 문화가 생기게 된 거야?

진수 : 음... 그건 말이지...

#2. 과거 회상

시간을 되돌리는 음악이 나오고, 기현을 제외한 나머지 인물들은 집 안으로 들어간다.

기현이 방금 전과 비슷한 자세로 연초 담배를 입에 문다.

이윽고 전화벨 소리가 들린다. 기현의 아버지가 등장한다.

아버지 : 아들! 잘 지내고 있어?

기현 : 네...

아버지 : 공무원 준비는 잘 돼 가고 있고?

기현 : 네... 근데요 아버지. 저,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공무원 되면 너무 좋겠죠. 근데 그건 제가 원하는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 : 이 짜슥이... 야 임마! 너 아직도 그 얘기 하는 거야? 아빠가 입이 닳도록 말하지 않았더냐.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야지만 이 험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니까!

기현 : 알아요. 근데, 한 번 사는 인생이잖아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단 말이에요.

아버지 : 아 됐고! 아빠 이제 더 이상 이런 말 듣고 싶지 않다. 너 한 번만 더 그렇게 뜬구름 잡는 소리 하면 월세고 뭐고 방 빼 버릴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전화를 끊고 퇴장한다.)

기현 : (담배를 피며) 하...

초록 색 집에 조명이 켜지고 PD가 등장한다.

PD : 김진수씨라고 했나? 아 우리 회사로 자꾸 이딴 쓰레기 음악 보내지 말라니까? 진수씨가 노력 많이 하는 건 알겠는데. 이 작곡이라는 분야는 말야. 재능이 거의 80퍼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진수 씨는... 20퍼짜리 인간이라는 거지.

진수가 기타를 들고 방 문을 세게 열며 나온다.

진수 : 아아.....!! 이 개같은 세상!! 왜 아무도 나의 예술혼을 몰라주는 거야!! (의자에 기타를 내려 놓는다.)

연구원의 목소리가 들린다.

연구원 : 수아 씨, 학점도 좋고, 포트폴리오도 좋은데, 논문이 이게 맞아? 평행세계와 무지개의 연관성에 관하여? 과학이 뭐 장난인 줄 알아? 우리 연구실엔 소설 쓰는 사람 안 받으니까 딴 데 알아 봐.

파란 집에 조명이 켜지고, 수아가 등장한다.

수아 : 아니 왜 뒷부분도 안 읽어 보고 내쫓아요! (집으로 올라간다.) 아니, 도대체 이걸 왜 이해 못 하는 거야?

빨간 집에 조명이 켜지고, 힘찬이 헉헉거리면서 등장한다.

힘찬의 반대편에 소방복을 입은 인물이 등장한다.

소방관 : 힘찬 씨, 아니 왜 이렇게 이름값을 못해? 3키로에 30분이 걸리는 사람이 어떻게 소방 공무원을 하겠다는 거야!

힘찬 : 그게... 제가 천식 때문에 잘 뛰질 못해서... 근데 저, 희생정신은 그 누구보다도 강합니다! 뽑아만 주신다면 제가 어떻게든 체력은 보완해보겠습니다!

소방관 : 상식적으로 보자. 천식 환자가 소방관을 하겠다는 건, 고소공포증인 사람이 스카이다이빙한다는 말이랑 똑같은 거야. 시간 낭비 하지 말고 다른 일 알아 봐.

힘찬이 힘없이 집으로 올라가자 전체 조명이 켜지고 4명을 비춘다.

각자 고민을 하고 있는 수아, 진수, 힘찬.

한 명씩 훑어보더니 한 마디 내뱉는 기현.

기현 : 힘드네요.

기현을 쳐다보는 셋.

수아 :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요?

기현 : 처음부터요.

힘찬 : (씩씩거리다가) 아니 제 말 좀 들어 봐요. 소방관 돼서 사람 구하는 데 체력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사람을 구하겠다는 마음, 이거 하나면 된 거 아니에요?

기현 : 체력이 많이 안 좋아요?

힘찬 : 3키로 뛰는 데 30분 걸려요. 천식이 있거든요.

기현 : 아... 그럴 수 있죠.

진수 : 제 얘기도 들어줘요. 아니, 얘기 말고 노래를 들어줘요. 세상이 저 같은 천재 싱어송라이터를 왜 몰라주는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기현 : 오... 진짜요? 한 번 들려줘 봐요.

진수 : (직접 만든 엉성한 노래를 들려준다.) 어때요? 어때요? 잘 들었어요?

기현 : 아... 아뇨. 잘 못 들었어요.

진수 : 그럼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 잠시만요.

진수가 기타를 치려 하자, 수아가 갑자기 화가 난 채로 일어난다.

수아 : 아니 근데!

기현 : 어... 갑자기 왜 그러세요?

수아 : 무지개가 필 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중첩되면 평행세계와 연결될 수 있다. 이 간단한 게 왜 이해가 안 돼요?

진수 : 우와, 그런 소설도 있어요?

수아 : 소설 아니거든요!!!!

기현 : 저거 소설 아니고, 영화에요.

수아 :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현실 세계에 일어나는 거라고요!

힘찬 : 오! 그걸 알아냈어요? 저도 그쪽 관심 있는데, 아... 아! 뭔가 그럴 거 같았어요.

수아 : 하... 네 그 쪽은 좀 대화가 통하는 분인가 보네요.

힘찬 : 아 근데 그거 웹툰 제목이 뭐였죠?

수아 : 아! 됐어요. 이렇게나 과학의 본질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니...

기현 : 근데... 다들 확실한 꿈이 있으신가보네요. (진수를 가르키며) 저 분은 가수가 되고 싶은 거고.

진수 : 가수가 아니라 싱어송라이터에요.

기현 : (힘찬에게) 저 분은 소방관이 되고 싶으신 거고.

힘찬 : 네! 맞습니다!

기현 : (수아에게) 저 분은 어... 맞춰 볼게요. 아, 웹툰 작가?

수아 : 아 웹툰 아니라고요! 물리학자에요.

힘찬 : 그럼 아까 무지개 어쩌고가 진짜 과학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수아 : 네!! 말했잖아요, 제가 알아낸 거라고. 저 나름 저희 과 과탑이거든요?

기현 : 부럽네요.

수아 : 하하, 별 거 아니에요.

기현 : 그게 아니라, 꿈을 가질 수 있다는 거요.

진수 : 그 쪽은 뭔데요?

기현 : 저는... (고민하다가) 그냥, 공무원 준비하고 있어요.

진수 : 꿈이 공무원인 거에요?

기현 : (침묵하다가) 모르겠네요.

정적.

힘찬 : 저기, 혹시... 저희 이렇게 만난 김에 주에 한 번씩 모여서 이런 얘기하는 거 어때요?

저 여기 503호 살거든요.

진수 : 어 저도 503혼데?

기현 : 저도요.

수아 : 저희 다 503호인가 보네요.

힘찬 : 주기적으로 모여서 꿈 얘기 하면서 힘든 것도 털어 놓고, 서로 동기부여도 해 주는 거죠. 좋잖아요. 서로 다같이 잘 되면.

수아 : 주에 하루 말고, 보름달이 뜰 때 모여요.

진수 : 그거 좋아요! 그 때마다 제가 만든 노래도 들려 드릴게요.

힘찬 : (기현에게) 어떠세요?

#3.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음악이 재생된다.

나머지가 원래 자리로 돌아오지만, 기현이 없다.

민지 : 우와... 그렇게 된 거였구나...

수아 : 근데, 무지개 평행세계 이론은 진짜야.

진수 : 그렇구나, 수아야. 근데 그 소설 언제 완성되는 거야?

수아 : (무심하게 망원경을 만지며) 응, 너 죽을 때?

진수 : (상처받았다는 듯이) 말을 너무 심하게 하네...

민지 : 근데 기현이는 어디 간 거야?

진수 : 공부하러 갔나 봐. 요즘 금방 들어가긴 하더라.

힘찬 : 니가 맨날 이상한 노래 부르니까 그런 거 아냐.

민지 : 그래서... 기현이 진짜 꿈이 뭔데?

진수 : 우리도 아직 몰라.

힘찬 : 어? 야, 너 몰라? 저번에 말해줬었는데.

수아 : 그걸 모른다고? 아... 야 힘찬아, 눈치 챙겨.

진수 : 엥? 언제 알려줬어? 나 빼고 알려준 거야? 와... 너네 나 왕따 시키냐?

힘찬 : (웃으며) 구라야. 우리도 모르지 아직. (집 안으로 들어간다.)

수아 : 그걸 속냐? (집 안으로 들어간다.)

진수 : 아 짜증나! 그래도 나 왕따는 아니었구나... 다행이다... (집으로 들어간다.)

민지 : 이 집으로 이사 오길 진짜 잘했다. 다 같이 하고 싶은 거 다 이루고 살았으면 좋겠다... 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내일 오디션이라 빨리 자야 되는데! (집으로 들어간다.)

잠시 후, 기현이 나와서 민지가 들어간 자리를 하염없이 쳐다본다.

암전.

#4.

구역 조명이 켜지고, 민지가 보인다.

민지 :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요? 왜 온 거죠? 이 정원의 담은 높고 넘기도 어려워요. 우리 집 사람들이 당신을 발견하는 순간 이곳은 죽음의 장소가 될 거에요. 그들이 당신을 마주치면 반드시 당신을 죽일 거라구요!

폼 잡고 서있는 감독이 보인다.

감독 : 자자, 거기서 멈춥시다. 서브텍스트도 좋고... 발성도 아주 좋아요. 아 근데, 흠... 뭐랄까... 2프로 부족하달까?

민지 :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더욱 열심히 연습하겠습니다!

감독 : 허허, 열정은 아주 좋네요.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근데 요즘에 민지씨만큼 하는 사람이 워낙에 쎄고 쎄서... 일단 뭐,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전체 조명이 켜지고, 보름달 조명도 켜진다.

베란다에 모두 모여서 맥주를 마시고 있다.

민지 : (맥주를 한입 하며) 아니, 열심히 하겠다는데 말을 왜 그따구로 하는 걸까?

힘찬 : 요즘 배우 준비하는 사람이 진짜 많긴 하지... 연기로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진수 : 난 근데 너 연기 잘하는 것 같은데?

민지 : 그래? 뭐가?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었는데?

진수 : 뭔가 간절한데... 우아해.

민지 : 역시 니가 보는 눈이 있구나. 예술가들끼리는 통하는 게 있다니까.

힘찬 : 쟤가 예술가라고?

수아 : 쟤 음악이 예술이면 우리 집 고양이 똥 싸는 소리도 예술이겠네.

진수 : 뭐? 너 고양이 키운다고? 집주인 아줌마가 방에서 동물 키우면 내쫓는다고 했는데, 아줌마 번호가 뭐였더라...

수아 : 아니, 아니...! 본가에서 키운다고.

기현, 말없이 담배만 피고 있다.

힘찬 : 야 성기현, 너 왜 그렇게 울상이냐?

기현 : 나 먼저 들어갈게.

힘없이 집으로 들어가는 기현.

수아 : 쟤 왜 저래?

힘찬 : 무슨 일 있나?

진수 : 시험 때문에 저러는 거겠지 뭐.

힘찬 : 기현이 시험 며칠 남았지?

수아 : 음... 한 달 반인가 남았다고 했던 거 같은데.

진수 : 자 쟤 걱정은 나중에 하고, 이번에 내가 또 신곡을 만들었거든? 자 들어봐.

진수가 기타를 치려 하자 모두가 자는 척을 한다.

진수 : 야 일어나 봐! 이번 껀 진짜 좋단 말야.

민지 : 흠냐... 난 들어가서 잘게. 얘들아 잘 자~ (퇴장한다.)

진수 : 하... 너네 진짜 너무한다! (퇴장한다.)

#5.

진수가 들어가자 슬그머니 일어나는 수아와 힘찬.

수아는 망원경을 들여다보고, 힘찬은 소방 공무원 책을 읽고 있다.

힘찬 : (수아를 힐끗 보더니) 야 수아야, 그러고 보니까 너 물리학자가 꿈이라고 하지 않았냐?

수아 : 응, 맞는데 왜?

힘찬 : 근데 요즘은 왜 그렇게 망원경을 봐?

수아 : 그게 어때서?

힘찬 : 천문학자 같잖아.

수아 : 요즘은 천문학에 빠졌어.

힘찬 : 그렇구나...

정적

힘찬 : 그 무지개 이론 말야, 진짜 네가 알아낸 거야?

수아 : 또 놀리려고 물어보는 거지?

힘찬 : 아니야!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무지개가 뜨면 평행세계가 보인다. 맞지?

수아 : 정확히는 '무지개가 뜰 때 양자 중첩 현상이 일어나면 평행세계가 보일 수 있다'야.

힘찬 : 아... 근데 그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건 맞잖아.

수아 : 그럼 납득하지 마.

힘찬 : 아니, 시비 거는 거 아니야! 그냥 네가 평소엔 상식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만 하다가 무지개 얘기 할 때만 되면 눈빛이 되게 똘망똘망해 진단 말야. 뭐가 널 그렇게 만드는지 궁금해.

수아 : 그게... (헛기침을 한다.) 사실! 과학을 공부하다보면 상식을 뒤집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세상을 바꾼 이론을 내놓은 사람들은 항상 세상의 의심을 받으면서 시작했어. 양자 역학이라고 들어봤지? 그걸 처음으로 얘기했던 닐스 보어도 처음엔 미친 사람 취급 받았거든, 근데 지금은 반도체니 뭐니, 그 기술이 온 분야에 엄청 중요하게 쓰이잖아.

힘찬 : 어...! 맞아맞아. 반도체 중요하지. 그... 삼성전자 말하는 거 맞지?

수아, 힘찬을 째려본다.

힘찬 : 하이닉슨가...?

수아 : 에휴, 됐다. 애초에 들어줄 거란 기대도 안 했어.

힘찬 : 아니야! 더 듣고 싶어. 설명해줘. 무지개 이론.

수아 : 왜 궁금한데?

힘찬 : 응?

수아 : 아니... 처음이란 말야. 내 얘기 듣고 싶어 하는 사람.

힘찬 : 그게... 내가 소방관이 되고 싶다는 건, 그게 뭔가... 현실에서 보이지 않는 이상적인 걸 찾아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란 말야. 죽을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내 손에 구해지는 걸 상상하면, 뭔가 세상이 나아지는 데 보이지 않는 힘을 보탠 것 같거든. 근데 네가 그 무지개 얘기를 할 때마다, 이상한 동질감 같은 게 들어. 너도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를 바라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아 : 음... 그런 느낌이긴 하지.

정적

수아 : (화제를 돌리며) 하... 이제 거의 다 왔는데.

힘찬 : 뭐가?

수아 : 부품이 하나만 더 있으면 돼. 고분해능 분광기라고, 빛을 파장별로 분석할 수 있게 하는 기구야.

힘찬 : 그게 그렇게 중요해?

수아 : 그것만 있으면, 무지개 이론을 손쉽게 증명할 수 있어! 근데, 그 장비가 있는 곳이 한 군데밖에 없어...

힘찬 : 빌려달라고 하면 안 돼...?

수아 : 이미 8번이나 거절당했어. 이제 남은 방법은 하나 뿐이야. (집으로 들어가려 한다.)

힘찬 : (다급하게) 수아야! 그... 나 있잖아...

수아 : 응?

힘찬 : 아니야! 그냥 무지개 얘기 더 해 줘. 그리고... 니 얘기도 해 줘.

수아 : 그럼, 양자역학 공부해 와.

힘찬 : 공부도 해야 돼?

수아 : 내 얘기 듣고 싶다며.

눈이 마주친 수아와 힘찬.

힘찬 : 할게.

암전.

#6.

진수 : 아니 이것도 안 된다고요?

조명이 켜지고, 진수와 PD가 보인다.

PD : 글쎄 몇 번을 말해. 자네는 재능이 없다니까?

진수 : 보름동안 밤 새가면서 만든 노래에요... 그럼, 적어도 뭐가 부족한지만 알려 주세요.

PD : 스토리가 없어요 스토리가. 노래에 이야기가 없으니까 감정도 안 실리지.

진수 : 그럼요? 스토리를 담는 작곡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PD : 진수씨, 내가 우리 진수씨 많이 봤으니까 인생 선배로써 현실적인 조언 하나 해 줄게. 진수씨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한 무기가 뭘까?

진수 : 음악을 향한 열정...?

PD : 아니, 나이야. 나이 먹으면 힘들어서 뭘 못 해~ 나 봐봐. 이제 오십댄데 벌써부터 허리가 막 쑤시잖아. 그러니까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기술 배워. 알았지? (퇴장한다.) 아유 허리야.

침울한 진수를 뒤로 하고 조명이 꺼진다.

반대편에 조명이 켜지고, 전화를 하고 있는 민지가 보인다.

민지 : 네? 최종 3인이요? 진짜에요?

감독 : 네. 내가 면접 때 말은 심하게 했지만 민지씨의 그... 간절하고... 우아한 목소리가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

민지 : 하하... 감사합니다.

감독 : 아 그리고, 내가 그때 끊었던 부분에서 감정을 조금만 더 살리면 좋을 것 같아.

민지 : 아... 명심하겠습니다!

감독 : 조만간 최종 오디션 기대할게요. 그 날이 최종적으로 줄리엣을 정하는 날이니까, 연습 많이 하고 와요.

민지 : 알겠습니다! 제가 최고의 줄리엣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와...! 나한테 이런 날이 오다니...!

민지를 비추는 조명이 꺼지고, 파란 집을 비추는 조명이 켜진다.

힘찬과 수아가 실험을 하고 있다.

수아 : 아니... 또 아니야...!

힘찬 : 이번에도?

수아 : 입사각은 맞는데, 스펙트럼이 너무 약해.

힘찬 : 한국말로 말해주면 안될까...?

수아 : (어린애에게 가르치듯) 무지개가, 예쁘게, 안 나온다고.

힘찬 : 아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수아 : (결심한 듯) 찾으러 가자.

힘찬 : 그 설마... 저번에 말했던 부품 얘기하는 거 아니지? 연구실에 있다는 거...

수아 : 맞는데?

힘찬 : 그건 찾는 게 아니라 훔치는 거잖아...

수아 : 훔치는 게 아니라 잠깐 빌리는 거야. 우리 둘로는 무리일 거 같으니까, 음... 애들을 좀 꼬셔볼까?

암전.

#7.

배경이 연구실로 전환된다.

무대 왼쪽에서 민지, 수아, 기현, 힘찬, 진수가 은밀하게 들어온다. 건너편에 연구원이 있다.

민지 : 수아야... 근데 진짜 이래도 되는 거야?

수아 : 실험하려면 이 부품이 진짜 필요하단 말야. 어쩔 수 없어.

진수 : 아 뭐 도와주면 치킨 사준대서 왔더니 이딴 거나 시키고... 걸리면 니가 다 책임 져라.

수아 : 아 알았다고! 그리고 훔치는 게 아니고 잠깐 빌리는 거야. 한 번만 쓰고 다시 돌려놓을 거야.

민지 : 괜찮은 거 맞지...?

수아 : 응, 내가 실험에 미쳐서 불법이나 저지르는 사람처럼 보여?

고개를 끄덕이며 수아를 쳐다보는 인물들.

수아 : 마, 맞을지도 모르지만, 이건 다 내 이론을 몰라주는 세상 때문이야. 자, 다들 준비한 대로 행동해.

진수 : 에휴...

기현과 민지가 반대편에서 망을 보고 있고,

진수가 연구원에게 다가간다.

진수 : 어... 저, 혹시 여기 화장실이 어디에요? 너무 급해서...

연구원 : 어, 학생. 여기 함부로 들어오면 안 돼!

수아 : 어... 힘찬아, 저거야! 저거!

수아와 힘찬이 같이 부품을 들기 시작한다.

진수 : (엉덩이를 잡으며) 저... 저! 지금 여기서 싸 버릴 수도 있어요. 싸요? 진짜 싸요?

연구원 : 자, 잠시만. 학생 진정해 봐.

진수 :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요? 저 진짜 한계에요! 아이고 나 죽네!

힘찬 : (부품을 든다) 이거 왜 이렇게 무거워...?

수아 : 민지야, 네가 가서 시간 좀 끌어 줘.

망을 보던 민지가 진수 쪽으로 다가간다.

민지 : 진수야! 찾았잖아...! 언제 또 이런 데로 왔어! 아, 죄송해요... 그, 제 동생인데, 얘가 어릴 적에 머리를 좀 다쳐서...

연구원 : 아... 그렇구나. 좀 딱하긴 한데. 여기 아무나 들어오면 안 돼요.

민지 : 그쵸... 근데 제 동생이 어쩌다 이렇게 됐냐면요... 중학교 2학년 땐가? 그 엄청 큰 개한테 물려서... (진수가 개 짖는 소리를 낸다.)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지... 그때부터 막 이상한 소리를 하고... 아무데서나 똥 싸고...

힘찬이 힘겹게 부품을 들자 경보음이 울린다.

수아 : 튀어.

경쾌한 음악 in.

인물들이 다 같이 뛰어 나가려고 하자, 연구원이 쫓아온다.

연구원 : 멈춰!

기현 : 야 여기 아니야!

뛰어 나오다 힘찬이가 넘어져 힘들어한다.

수아 : 얘들아, 힘찬이 좀 도와줘!

기현이 힘찬이를 부축하고 반대로 도망간다.

민지 : 여기도 아니잖아!

다시 반대 방향으로 도망치다가 기현이 진수를 밀쳐 넘어뜨리고 밖으로 뛰어나간다.

진수, 연구원과 처량하게 무대에 남는다.

암전.

#8.

조명이 켜지고, 각자 베란다에서 헐떡거리는 인물들이 보인다.

만신창이가 된 진수가 초록 집에서 등장한다.

진수 : 야 이수아, 너 때문에 죽는 줄 알았잖아!

수아 : 그래도... 목표를 달성했어.

힘찬 : 수아야 근데 그거 진짜 다시 돌려놓을 거 맞지...?

수아 : 당연하지. 드디어... 내 이론을 증명할 수 있는... 어?

민지 : 왜? 뭔 문제 있어?

수아 : 충전기를 안 가져 왔어...

기현 : 아오... 진짜, 헛짓거리했네.

담배를 꺼내 무는 기현.

수아 : 미안해...

민지 : 얘들아 근데, 저기 이름 적힌 비석 하나 있잖아. 저건 뭐야?

진수 : 아 저기 BT.Steve랑 봉준후, 손흥문이라고 적힌 거?

민지 : 응.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힘찬 : 우리도 몰라? 우리 오기 전부터 적혀져 있던 거야.

기현 : 그동안 아무 생각 안 했는데, 막상 물어 보니까 궁금하긴 하네.

집주인 아줌마가 지나간다.

진수 : 어? 야, 저기 집주인 아줌마 지나간다. 한 번 물어봐봐.

힘찬 : 아주머니~ 잘 지내셨어요? 오랜만이네요.

집주인 아줌마 :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503호 청년들이 다 모여 있네 호호호. 다들 벌써 많이 친해 졌나 봐. 아니 신기하게 우리 집 503호로 오는 청년들은 뭐가 있나 봐? 옛날부터 이렇게 종종 베란다에 모여서 얘기도 하면서, 쉽게 친해지더라고.

힘찬 : 아 진짜요? 저희 오기 전에도 그랬어요?

집주인 아줌마 : 그럼~ 그러다가 눈 맞아서 결혼한 애들도 많았지 아마? 어 그래 여기 있네. 손흥문이. 손흥문이 얘가 여기 살았었는데, 아주 늠름하게 생겨갖고 축구선수 돼서 나갔는데, 어머 글쎄. 갑자기 윗집 여자애랑 결혼한다고 청첩장 주더라고.

힘찬 : 아... 그럼 저기 써져 있는 사람들 다 여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집주인 아줌마 : 어, 이거는 음... 몰라도 돼 호호.

민지 :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궁금해요. 알려 주세요!

집주인 아줌마 : 아냐아냐 절대 안 돼.

진수 : 아 아줌마~

집주인 아줌마 : 흠... 알았어, 알려 줄 테니까 절대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지 마. 알았지?

힘찬 : 네! 진짜 저희만 알고 있을게요.

집주인 아줌마 : 아유 집값 떨어질까 봐 숨기고 있었는데, 자 한 번만 말할 거니까 잘 들어. 우리 집에는, 전설이 하나 있어...

민지 : 뭔데요...?

집주인 아줌마 : 우리 집에 큰 꿈을 가지고 들어오는 청년들이 아주 많은데, 하나같이 아주 특별한 일을 겪게 되더라고.

진수 : 뭐가요? 뭐가 특별한데요?

집주인 아줌마 : 바로... 반드시 해마다 한 명만 꿈을 이루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그 꿈을 이룬 사람은 저기 뭐야, 어. 마술처럼, 이 돌에 이름이 써지더라고.

수아 : 아니, 아줌마 그런 게 어딨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집주인 아줌마 : 아이고? 믿기 싫으면 믿지 말어!

힘찬 : 근데 뭐, 그게 맞다고 해도 별 거 아닌 거 같은데요? 올 해 못 이루면 내년에 이루면 되는 거잖아요.

집주인 아줌마 : 아니. 나머지는 반드시 꿈을 포기하게 돼. 절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는 저주를 받게 되는 것처럼 말이지.

진수 : 에이... 재미없어요 아줌마.

집주인 아줌마 : 내가 IMF 때부터 여기서 청년들 세를 받았어. 자 봐봐. (비석 뒷면에 년도와 사람 이름이 더 많이 적혀 있다.) 내가 걔네들 방 빼고 나서도 자식들 같으니까 밥도 사주고, 연락도 자주 하는데 아니 글쎄 한 번

도 틀린 적이 없었다니까? 여기 이름이 적힌 청년들은 아이돌이니, 영화감독이니, 축구선수니 하면서 다 잘 되는데. 다른 애들은 십년 이십년이 지나도 끝까지 꿈을 못 이루다가 언젠간 포기하더라고.

기현을 제외하고 시무룩해진 인물들.

집주인 아줌마 : 아이고, 내가 괜한 얘기를 했나 보네. 그냥 뭐... 다들 열심히 하라고 한 말이야... 호호. 너무 신경 쓰지 마. 내 정신 좀 봐. 된장찌개 끓여야 하는데, 아이고야... 된장찌개. (퇴장한다.)

민지 : 에이, 얘들아 너네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지? 그냥 장난으로 하신 말 같은데.

진수 : 그치... 하하. 장난으로 하신 거겠지... 나 먼저 들어갈게 얘들아. (퇴장한다.)

힘찬 : 어, 나도... 갑자기 좀 피곤하네. (퇴장한다.)

민지 : 수아야, 넌 저런 거 안 믿지?

수아 : 어, 믿진 않지. 근데 저렇게 증거가 있으니까... 그냥 그렇다고. 믿는다곤 안 했어! 나 갈게. (퇴장한다.)

민지 : 기현아... 넌 아무렇지도 않아?

기현 : 응.

민지 : 그치...?

기현 : 어차피 저 얘기가 진짜라고 해도 딱히 신경 안 써.

민지 : 왜?

기현 : 난 이미 꿈을 잃어버렸거든.

민지 : 그게 무슨 말이야...? 너도 꿈이 있다고 했잖아.

기현 : 나 잘게. 내일 시험이라. (퇴장한다.)

민지 :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암전.

#9.

진수가 간절하게 PD를 바라보고 있다.

PD : 흠... 이번 건 좀 봐줄만 하네. 멜로디도 괜찮고. 아 근데, 여전히 가사가 뭔가 부족해. 아직도 스토리가 안 보여!

진수 : 아직도요...? 스토리 만든다고 3일동안 넷플릭스만 봤다고요!

PD : 그런 가짜 이야기들 말고, 진수씨만의 스토리를 넣어 봐. 그런 게 울림이 있는 거야.

진수 : 제 이야기요...?

PD : 아니면 진수씨 주변에 있는 이야기도 좋고.

조명이 꺼지고, 수아가 보인다.

수아 : 그러니까, 무지개가 뜰 때 빛이 수십억 개의 물방울에서 동시에 간섭하고 중첩되면서, 그 찰나에 서로 다른 가능성이 아주 잠깐 겹치면 평행세계가 보일 수 있다는 거에요. 충분히 연구할 가치가 있다니까요?

연구원 : 흠... 자세한 얘기를 들으니 아예 소설은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근데요, 제가 지금 그렇게 아름다운 연구를 진행할 정신머리가 없어요. 안 그래도 저번에 어떤 미친놈들이 우리 연구실에 쳐들어와서 부품을 훔쳐가고 아주 쌩 난리가 나가지고... 어, 잠깐만. 그 때...

얼굴을 가리는 수아.

연구원 : 에이... 아니지? 그 놈들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러 놓고 글쎄 충전기를 안 가져가서 그런지 어느새 다시 되돌려 놓고 갔더라고. 허 참, 멍청한 놈들... 아무튼 국가에서 그런 데 쓸 돈을 지원해 주지도 않고요. 다른 데 가 봐도 똑같을 거에요. 저도 도와주고 싶은데, 상황이 여의치 않네요.(퇴장한다.)

수아 : 그래, 그래. 도와주지 마라. 나 혼자 증명해 낼 테니까.

조명이 꺼지고 힘찬이 멀리서 뛰어 온다.

힘찬 : 헉... 헉... 아 진짜 너무 힘들다. 몇 분 나왔지? 와, 이렇게 뛰어도 23분이네. 시험 통과하려면 두 배는 빨리 뛰어야 되는데... 휴, 그래도 발전이 있는 게 어디냐. 언젠간... 할 수 있겠지?

#10.

보름달 조명이 켜지고, 혼자 나와서 기타 연습을 하고 있는 진수가 보인다.

진수 : 에휴... 들어줄 사람이... 없네.

수아가 나온다.

수아 : 야 박진수! 기타 소리 때문에 집중이 안 되잖아.

진수 : 야, 너나 그 말도 안되는 실험 좀 이제 그만하면...

수아 : 뭐? 너 지금 뭐라고 했냐?

진수 : (침묵하다가) 못 들은 걸로 해라.(퇴장한다.)

수아 : 자,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어. 해 보자. 입사각을 52도로 하고... (프리즘이 고정되지 않고 자꾸 떨어진다.) 하... 혼자서는 힘들긴 하네.

힘찬이 푸쉬업 바를 들고 등장한다. 수아와 눈이 마주친다.

힘찬 : (어색하게) 안녕.

수아 : 어... 그래.

힘찬 : 수아야. 뭐 도와줄 거 없어?

수아 : 어... 어 괜찮아. 아 맞다. 나 할 거 있었는데.

급하게 퇴장하는 수아.

힘찬이 아령을 들고 있는데, 민지가 대본을 들고 나온다.

민지 : 어, 힘찬아! 운동하고 있었네.

힘찬 : 어 응...

정적

민지 : 힘찬아. 그 전설 말야, 진짜일까?

힘찬 : 글쎄...

민지 : 저번엔 안 믿는 척했는데.

힘찬 : 나도.

민지 : 근데 만약... 진짜면 어떡하지? 우리 중 한 명만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게...

힘찬 : 난 뭐, 포기해도 괜찮아. 나 대신에 누군가 이룬다면.

민지 : 진짜?

힘찬 : 응. 근데, 너희랑 지내다 보니까... 소방관 되고 싶다는 거랑은 다른 욕심이 생기더라. 수아는 연구원 되고, 진수는 멋있는 노래 부르고, 넌 무대에 서고, 기현이는 원하는 삶을 살고... 그러면 좋겠다고. 어느 순간부터는... 내 꿈이 아니라 우리 꿈이 됐나 봐.

민지 : 우리 꿈...

전화가 온다. 민지의 어머니다.

민지 : 응 엄마.

민지 어머니 : (껌을 씹으며) 어 그래, 우리 딸. 뭐 하고 있었어?

민지 : 대본 연습하고 있었지. 아, 나 그리고... (신난 목소리로) 최종 3인으로 선발됐어!

민지 어머니 : (대답 없이 껌만 씹다가) 그래서?

민지 : 응?

민지 어머니 : 그래서 뭐 어떡하라구. 너 배우하고 싶다고 해서 엄마가 돈을 얼마나 퍼부었는데 당연히 그 정돈 해야지.

민지 : 어... 그치.

민지 어머니 :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 이딴 말 다 헛소리야. 결과가 가장 중요한 거야. 알았어? 최종 선발 아니면 아무 것도 아닌 거라구.

민지 : ... 최선을 다 할게.

전화를 끊고 한숨을 몰아쉬는 민지. 민지 : 우리 집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 가만두지 않을 거에요! 가만두지 않을 거에요! 가만두지 않을... 아 감정을 어떻게 살리라는 거지..

기현이 나와서 담배를 꺼내 문다.

민지 : 우리 집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 가만두지 않을 거에요!

기현 : 사랑이... 길을 알려줬어요.

민지 : 어...? 기현아. 언제부터 있었어?

기현 : 2막 2장, 맞지? 로미오와 줄리엣.

민지 : 응 맞아. 어떻게 알았어?

기현 : 그냥... 유명하잖아.

민지 : 나온 김에 나 연기하는 것 좀 봐주라. 이 부분에 감정을 살려야 하는데 도통 감이 안 잡혀서...

기현 : 알았어.

민지 :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요? 담은 높고, 이곳은 당신에게 너무 위험한 곳이에요. 우리 집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 가만두지 않을 거에요!

기현 : 사랑이 길을 알려줬어요. 높은 담도, 어두운 밤도 내 발을 멈추게 하진 못했어요. 당신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 하나면 충분했으니까요.

민지 :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말아요. 정말 다칠 수도 있어요.

기현 : 당신을 보지 못하는 하루가, 칼에 베이는 것보다 더 아픕니다.

민지 : 근데... 대사를 어떻게 다 알고 있는 거야?

기현 : 내 역할이었거든.

민지 : 진짜? 너도 연기를 했었어?

기현 : 응.

민지 : 왜 그동안 말 안했어?

기현 : 말했잖아. 잃어버렸다고.

민지 : 그럼 원래 꿈이... 배우였던 거야?

기현 : 응.

민지 : 왜 잃어버린 건데? 하고 싶으면 하면 되잖아.

기현 : 아버지가 반대하셔서.

민지 : 아... 그래도 잘 말씀 드려 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잖아. 너가 진심으로 하고 싶다고 말씀드리면 분명 응원하실 거야.

기현 : 나도... 그럴 줄 알았어.

민지 :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기현 : 작년 이맘때쯤에 극단에 들어갔었는데, 처음인데도 운 좋게 로미오 역할을 맡게 됐어.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지. 아버지가 드디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모습을 제대로 볼 날이 오겠구나 싶었거든. 그래서 아버지를 공연에 초대했어. 무대에서 내려오면, 아버지가 나한테 박수 쳐주고, 꽃다발도 주면서 멋있게 내 꿈을 인정해줄

줄 알았어. 근데 정작... 공연 끝나고 로비로 나오니까 아버지가 선배들한테 소리 지르고 있더라.

아버지 : 야 이 새끼들아! 누가 우리 아들한테 이딴 걸 시킨 거야? 내가 우리 아들 이런 광대짓거리나 하는 놈으로 키운 줄 알아?

기현 : 그걸 위에서 보고 있었는데... 연극 의상이, 입고 있으면 안 되는 옷처럼 느껴지더라. 가장 응원해 줬으면 했던 사람이, 이런 내 모습이 틀렸다고 얘기하니까.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극장은 문을 닫았어. 아버지가 시의원이신데, 아울렛 거리를 만들 위치를 고민하던 중에 마침 잘됐다 하면서, 극장이 있던 자리를 정하셨거든. 나 때문에 극장도 망한 거야.

민지 : 그래서... 억지로 공무원 준비를 했던 거야...?

기현 : 응.

민지 : 아... 어, 맞다! 오늘 시험이었잖아. 잘 보고 왔어...?

기현 : 관심 없어.

정적

민지 : 기현아.

기현 : 왜?

민지 : 그럼... 이제 공부 안 해도 되는 거지. 결과 발표 전까지는.

기현 : 그치... 좀 쉴 수 있겠네.

민지 : 그럼, 당분간만이라도 내 상대 배역이 되어 줄 수 있어?

기현, 침묵한다.

민지 : 이제 곧 최종 오디션인데, 혼자 연습하긴 무섭단 말야...

기현 : 넌 지금 무서운 척하고 있어.

민지 : 응?

기현 : 그 장면에서 줄리엣은 진짜 무서운 거야.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도 붙잡고 싶은 거고.

민지 : 그럼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데...?

기현 : 한 번 상상해 봐. 네가 소중한 사람을 만났어. 근데 그 사람이 내일 사라져서 다시 못 볼 수도 있어. 그 사람한테 뭐라고 말할 것 같아?

마주보고 있는 민지와 기현을 뒤로 하고 암전.

#11.

조명이 민지와 감독을 비춘다. 최종 3인이 보인다.

민지 : 우리 집 사람들이 당신을 마주치는 순간, 이곳은 죽음의 장소가 될 거에요. 그들이 당신을 마주치면... 반드시 당신을 죽일 거라구요!

감독 : 흠... 좋아요. 확실히 많이 나아졌네요.

민지 : 감사합니다!

감독 : 자... 그래서, 줄리엣을 맡을 최종 1인을 발표하겠습니다. 바로...

조명이 세 명을 번갈아 비춘다.

감독 : 주민지 씨!

민지 : 우와!!

희망적인 음악이 나오고 암전.

#12.

조명이 켜진다.

민지가 베란다에 있다.

민지 : 밤은 왜 이렇게 사람을 솔직하게 만드는 걸까요. 낮이었다면 이런 말, 절대 하지 못했을 텐데.

희곡·시나리오 | 장려상

〈활공〉

김아름

활공(滑空)

S#1. 중학교 교실 / 낮 (꿈)

검은 화면이 이어지다가 중학교 교실의 풍경을 장면장면으로 비춘다.
사용감이 가득해 지저분한 녹색 칠판,
교실 뒤에 켜켜이 놓인 사물함들,
학습지에 샤프를 들고 글씨를 날려 쓰느라 분주하게 움직이는 학생들의 손,
삼선 슬리퍼를 신은 채 책상 발걸이에 편히 기대고 있는 모습과
책상 위에 놓인 학습지 주제.

'진로수업: 친구의 꿈을 듣고 응원해주기! / 옆친구의 꿈을 듣고 좋은 코멘트를 달아줍시다. 그리고 반친구들과 공유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홀로 샤프를 들지 않은 채 엄지손가락 거스러미를 뜯고 있는 모습을 비춘다.
장면들의 교차편집되어 비춰지는 동안, 낮은 남학생1의 목소리로 나레이션이 들린다.
나레이션 대사는 자막으로 보여진다.

NA. 너는 온전히 추락하려 하고 있다. 추락, 하강.
너는 난기류를 만나 완전히 흔들리고 있다.
몸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온전한 추락, 즉 활공.

남학생1이 발표를 마치자 드문드문 들려오는 학생들의 박수소리.
남학생1의 악필로 쓰여진 발표문을 비춘다.

남학생2(V.O) 이건 뭐 저주 아니냐?
남학생1(V.O) 아니 지가 활공하고 싶다잖아, 활공! 연료가 딸려서 하강하는 거.

S#2. 고등학교 상담실 / 낮 (꿈)

잠시 검은 화면을 비추다가 고등학교 상담실의 풍경을 비춘다.
책상 위에 올려진 김이 나지 않는 커피 머그컵,
노란 문서 파일에 쓰여진 '진로상담일지'.
주름진 손이 상담일지를 펼치면 엑셀로 정리된 학생 명단이 보이나,
여러 필기가 쓰여진 다른 학생들 명단에 비해 '임혜경' 명단에는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다.
책상 위에 놓인 고운 손을 손가락을 만지작거린다.

혜경(V.O) (매우 차분하고 작지만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저는… 활공이요.
선생님(V.O) 음… 꿈이 활공이라…. 활공 뜻은 뭔지 아니? 선생님이 알기로는 비행기가 하강하는 건데. 하강…이 하고 싶어?
혜경(V.O) ….
선생님(V.O) 아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혜경(V.O) …먼지요, 먼지. 날고 싶어요, 따스한 햇빛을 맞으며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싶어요, 이 세상을.
선생님(V.O) 내가 보기엔, 그건 불가능할 것 같다.

상담실에 있는 창문으로 노르스름한 햇살이 비춰온다.
창문 모양에 따라 들어오는 햇살로 인해 먼지들의 활공이 보인다.
자잘한 먼지들은 따스한 조명을 받으며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으며
마치 밤하늘에 수놓인 별처럼 두둥실 떠올랐다가 내려간다.

먼지가 활공하는 화면에 타이틀 <활공(滑空)>이 떠오른다.
그 뒤로 다음과 같은 문장이 떠오른다.

1. 새가 날개를 움직이지 아니하고 낢.
2. 항공기 따위가 공중에서 연료가 없어 극히 약하게 작동하는 상태에서 지면을 향하여 하강 혹은 추락하는 것

문장은 서서히 페이드 아웃 된다.

S#3. 편의점 / 낮

상담실 안 먼지들의 활공 장면에서 편의점 통창으로 들어오는 햇빛들의 모습으로 전환된다.
편의점 통창에서 들어오는 햇빛의 방향에 따라 시선을 내리자
편의점 매대에 엎드려 자고 있는 혜경의 모습이 보인다.
고요하던 적막 속에 손님1의 화난 목소리는 점차 커진다.

손님1(V.O)　　저기요, 저기요!
혜경　　(화들짝 놀라깨며) 에?

혜경은 급히 고개를 들고 의자에서 벌떡 일어난다.

손님1　　계산이요. 몇번을 불렀는데.
혜경　　(손등으로 눈을 살짝 비비며) 죄송합니다.

혜경은 물건의 바코드를 허둥지둥 찍는다.
아직 잠이 덜 깬 탓일까 손에서 물건을 계속 놓치고
바코드를 찾느라 물건을 이리저리 돌린다.
혜경은 손님1에게 카드를 받아들어 카드 리더기에 넣는다.
하지만 띠링- 하면서 포스기 화면에 뜨는 경고 알림창.
혜경이 물건 바코드를 제대로 찍지 않은 듯 하다.
하지만 손님1은 이미 산 물건들을 본인의 가방에 쑤셔넣는 중.

혜경　　아 죄송해요, 이게 지금 잘못돼서… 다시 해드릴게요.
손님1　　아 진짜….

손님1은 다시 물건을 다 매대로 빼고
혜경은 다시 바코드를 찍어 손님1의 카드를 카드 리더기에 넣는다.
드디어 제대로 된 계산.
혜경은 손님1에게 카드를 건네자
손님1은 카드를 뺐듯이 쥐고는 빠르게 편의점 문을 빠져나간다.
손님1은 문 밖으로 나가자마자 혼잣말 하며 혜경을 욕하는 듯 하다.

혜경은 그런 손님1의 모습을 편의점 통창으로 바라보다가
편의점 씨씨티비가 달린 천장 방향으로 고개를 돌린다.
혜경은 씨씨티비를 쳐다보며 눈치를 보다가 이내 다시 매대로 눈을 돌린다.
매대 구석에 간당간당하게 놓인 두꺼운 책의 종이는 무언가로 인해 젖어있고
검은 활자들이 조금씩 흐려 번졌다.
혜경은 포스트잇과 인덱스가 아주 덕지덕지 붙어있는 책을 덮는다.
어두운 색의 북커버로 책의 제목은 보이지 않는다.
책을 덮다가 떨어진 샤프.
대리석 바닥에 날카롭게 떨어진 샤프의 심이 뚝 부러진다.
혜경은 샤프를 주워 허공에서 샤프심 버튼을 달칵달칵 여러번 누른다.
샤프 안에서 이미 부러져버린 샤프심 조각들이 차례로 떨어지며 매대에 흩뿌려진다.

S#4. 편의점 / 밤

혜경은 포스기 버튼을 꾹꾹 누르고 돈통을 꾹 잡어넣어 마감 정산을 완료한다.
혜경은 손님들이 볼 수 없는 매대 바닥 구석에 널부러진 가방을 챙기고
편의점 유니폼 조끼를 의자에 고이 접어둔다.
한쪽 어깨에 가방을 맨 혜경은 북커버 책을 한손에 들고 매대를 빠져나간다.
그 순간, 편의점 사장이 문을 열고 편의점으로 들어온다.
혜경은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라 조용히 목례만 한다.
편의점 사장은 혜경을 보고 능청스러운 말투와 태도로 다가온다.

편의점사장　　책보다가 졸았나보지? 존 수준이 아니고 뻗은 것 같가는 한데.
혜경　　…죄송해요.
편의점사장　　근데 대체 뭘 그렇게 읽는거냐?
혜경　　(책을 황급히 가방에 넣는다)
편의점 사장　　책이 아니고 다이어리야?
혜경　　아뇨.
편의점 사장　　데스노트는 아니지? 진상손님 저주하려고?
혜경　　아닙니다. 안녕히계세요.

혜경은 매대 앞으로 다가온 편의점 사장에게 가벼운 목례를 하고 편의점 문을 향해 걸어간다.
편의점 사장은 그런 혜경을 향해 몸을 돌리며 혜경의 등 뒤에다가 이야기를 한다.

편의점사장　　알바 언제까지 할거냐?

혜경　　(발걸음을 멈추고 뒤돌아 사장을 쳐다보며) …네?

편의점사장　　알바 언제까지 할거냐고.

혜경　　…

편의점사장　　일할 마음도 없어보이고 손님이 온지도 모르고 자고 있고. 그런 알바생을 내가 굳이 돈주고 고용을 해야하나? 안그래?

혜경　　…

편의점사장　　너를 딱 보면 뭐랄까, 뭘 할 생각이 없어보여. 요즘애들이 다 그렇더라. 뭐 하고싶은게 없어. 그냥 살아지니까 사는거라고 해야하나? 알바도 그냥 돈벌려고. 꿈이 없어. 젊은애들이 벌써부터 그러면 어떡하냐.

혜경　　…꿈 있어요

편의점사장　　꿈이 있어? 뭔데? 백수 돼서 여유롭게 책 읽는거?

혜경　　….

편의점사장　　뭔데? 어?

혜경　　…있어요…. 지금 말할 수는 없어요.

편의점사장　　부끄러운 꿈인가봐? 남한테 말하지도 못할 꿈을 꿈이라고 할 수 있나? 그건 꿈이 아니야, 허황된 소망이지.

S#5. 혜경 자취방 / 밤

방 침대 위에 누워있는 혜경.

혜경은 새우잠 자세로 팔을 안쪽으로 말고 두손으로 얼굴을 받치고 있다가,

자세를 바꿔 똑바로 누운 상태로 한쪽 팔을 이마에 올려놓는다.

혜경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다가 작게 한숨을 쉰다.

그러다 혜경은 눈을 천천히 뜨고 허리를 일으켜 침대에 앉는다.

침대 옆에 놓인 책상에는 북커버를 씌운 책이 놓여져있다.

혜경은 책을 한참 바라보다가 책의 북커버를 벗긴다.

<활공하는 방법> 이라는 제목의 책.

혜경은 표시해놓은 인덱스를 잡고 책을 펼친다.

'활공의 첫번째 단계, 남의 말에 귀을 심히 기울이지 말라'

해당 문장 옆에는 '-> 실패'라는 샤프로 적힌 필기가 쓰여있다. 혜경은 페이지를 훑어 다음 문장을 찾아 나선다.

'두번째 단계, 같이 활공할 동료를 찾아라, 꼭 똑같은 목표가 아니더라도 비슷하게 활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으고 동기를 찾아라.'

혜경　　(혼잣말로) 동기….

혜경은 충전 중인 핸드폰을 꺼내들어 중고거래 어플 '당근'에 접속한다.
검색창을 띄워놓고 입력바가 몇 번을 깜빡거리도록 고민하다가 타이핑을 한다.
그러나,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라고 뜨는 페이지.
혜경은 검지손가락으로 침대 매트리스를 툭툭 치며 그 페이지를 한참 들여다본다.

S#6. 혜경 자취방 / 아침
샤워기 물 트는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이내 서랍장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드라이기 소리 등 분주하게 외출 준비를 하는 소리들이 들린다.
화면은 침대 위에 놓인 혜경의 핸드폰 화면을 비춘다.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나눈 채팅창의 모습.

'안녕하세요. 방장입니다. 같은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으니 만나서 얘기해보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방장님'

'사거리 앞 카페 1층에서 만나죠.'

혜경은 외출 준비를 모두 끝냈는지 핸드폰 버튼을 눌러 채팅창 이전 화면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채팅장의 이름이 보인다.
무모모, 무모한 꿈을 가진 자들의 모임.

S#7. 사거리 앞 카페 / 낮

원형 테이블에 어색하게 앉아있는 네 사람.
다들 조용히 자기 앞에 놓인 커피잔을 쳐다보다가 서로의 눈치를 본다.
혜경은 단정한 차림이지만 나머지 세 사람은 개성이 넘치는 옷을 입었다.
혜경은 조용히 눈을 돌려 세 사람들의 옷차림을 구경하기 바빴으나,
우연히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면 바로 눈동자의 위치를 바꿔 눈을 뗀다.
카페에 흐르는 재즈 음악만이 들려오던 와중에 남자1이 운을 띄운다.

여자1　　저희… 자기소개라도 해볼까요?

여자1의 물음을 끝으로 또 재즈 음악이 들려온다.
다들 눈치를 보며 네, 아니오 라는 대답도 하지 못한다.
여자1은 눈치를 보며 사람들의 반응을 살폈으나 모호한 반응에 당황한 역력이다.
여자1은 힐끗 눈치를 보다가 이야기를 이어간다.

여자1　　저부터 할게요. 저는 이 근처에 살고있는 학생이구요. 지금은 수학 전공하고 있습니다. (눈치를 보며) 음… 저의 무모한 꿈은 세계적인 수학자가 되는 거예요. 사실 수학을 잘하지는 못하는데 제가 계산 하나는 진짜 잘하거든요. 그래서….

여자1은 그렇게 본인의 이야기를 어중간한 단어로 마친다.
여자1 옆에 앉은 여자1은 분위기를 살피다가 커피를 한모금 마시고
눈치껏 본인의 자기소개를 시작한다.

남자1　　저도 학생이구요. 초등교사가 되고 싶어요. 정말, 정말 좋은 선생님이요. 정말 엄마 같은 그런 선생님. 근데 저는 정말 마, 말을 잘 못해요… 발표 같은 것도 염소 목소리로 하고… 네….
혜경　　저도 학생인데, 제 꿈은….

남자1은 자기소개를 하다가도 얼굴이 점차 빨개지고 많이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인다.
주목되는 상황을 힘들어하는 남자1을 위해
혜경은 남자1의 말이 어느정도 끝나자 곧바로 자신의 자기소개를 이어가려 한다.
자기소개를 이제 막 시작하려던 순간,

어느 남자2가 헐레벌떡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온다.
네 사람의 시선은 모두 남자2에게로 옮겨진다.
뛰어왔는지 머리가 산발로 정리도 안 된 착장으로 온 남자2는
네 사람이 앉아있는 테이블 쪽으로 허겁지겁 걸어온다.

남자2　　아이고 죄송합니다. 너무 늦어버렸네.

남자2는 옆테이블 의자를 끌고 남자1과 여자1의 사이를 비집고 들어온다.
남자1과 여자1은 당황한 기색으로 조금씩 의자를 옮겨 남자2의 자리를 만들어준다.
남자2는 의자에 앉자마자 머리를 털고 다리를 꼬운다.
혜경을 포함한 네 사람은 남자2의 눈치를 보며 황당하고 불편한 모습을 보인다.
그와중에 눈치 없이 시작된 남자2의 질문.

남자2　　여기 방장이 누구시죠?
혜경　　(눈치를 보다가 손을 살짝 들며) 전데요.
남자2　　(혜경의 차림새를 눈으로 훑으며) 아 그러시구나. 저 오기 전에 뭐하고 계시지 않으셨나? 계속 하세요.
혜경　　(눈치를 보다가 다시 입을 떼며) 자기소개하고 있었는데, 저도 학생이구요. 그리고 제 꿈은… 활공이예요.
남자2　　(가만히 듣다가 갑자기 큰소리로) 예? 그게 뭔데요. 활공? 내가 아는 그 활공인가.
혜경　　(부끄러운 마음에 커피잔을 응시하며) …하늘을 나는거요. 자유롭게.

혜경의 대답에 남자2는 폭소한다.
카페가 떠나갈 듯이 큰소리로 웃는다.
혜경은 그런 남자2를 보며 불편한 마음이 드는 동시에 부끄러운 마음이 샘 솟는다.
혜경은 테이블 밑으로 손가락의 거스러미를 뜯고 손을 꼬우며
입술을 꽉 깨문 표정으로 본인의 손만 내려다 본다.
남자2는 남자1의 어깨를 툭툭 치며 눈치없이 불쾌하게 웃는다.
남자2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도 모두 황당하고 불편한 기색을 표하며 서로의 눈치를 살핀다.
남자2는 한참의 폭소를 마무리하며 혜경을 웃기다는 듯 쳐다본다.

남자2　　(실실 웃으며) 하늘을 나는거요? 그거 참 무모한 꿈이네. 방장 맞네요.

혜경　　….

남자2　　그러면 그냥 낙하산 체험이나 하시지. 아니면 옥상에 올라가서 자유낙하 운동이라도, 하하하.

남자2는 본인이 한 말이 스스로 웃겼는지 다시 크게 웃기 시작한다.
혜경의 어깨는 점차 좁고 작아졌고 혜경의 엄지손가락 거스러미는 피가 비치기 시작한다.
여자1은 남자2를 쳐다보며 이제 그만하라는 말과 행동을 취했으나.
남자2의 무례함은 막을 수가 없다.
남자2는 점차 웃음을 멈추고 두 팔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무게중심을 앞으로 옮기며 혜경을 똑바로 바라본다.
혜경 또한 그런 남자2의 눈을 쳐다본다.

남자2　　무모한 꿈꾸는거, 시간 아깝지 않아요?

혜경은 아무말도 하지 못한다. 본인도 아는 바이기에.

남자2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 계산기가 되겠다고 하는 것, 저출산 시대에 교사가 되겠다고 하는 것, 영화시장이 다 죽은 마당에 영화감독이 되겠다고 하는 것. 이런 것만큼이나 쓸데없고, 무모하고, 허황된 게 여기 또 있었네요.

남자2　　어차피 미래도 없고 가능성이 없는걸, 굳이 하시네.

남자2는 테이블 위에 아주 잔인한 이야기를 던져놓고
의자에서 일어나 카페 밖으로 나간다.
테이블에 남은 네 사람은 마치 비극을 본 직후의 표정을 지으며
아무말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다.
여자1은 무표정으로 간단히 목례를 하고 카페 밖으로 나가고
남자1도 슬쩍 눈물을 훔치며 가방을 챙겨 카페 밖으로 나간다.
테이블에 남아있는 혜경과 민현.
혜경은 마치 폭격을 맞은 듯 충격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듯한 표정을 짓는다.

그러다 혜경은 정신을 차리고 짐을 챙겨 의자에서 일어난다.
카페 문으로 향하는 길에 민현이 뒤에서 혜경을 불러세운다.

민현　　(의자에서 일어난 채로) 활공, 좋아요.

혜경　　(뒤를 돌아 민현을 쳐다본다)

민현　　저랑 얘기 좀 더 하실래요? 이왕 첫모임인데… 이 무거운 자리는 말고 다른 곳에서요.

혜경은 가만히 민현의 표정을 바라본다.
비극을 보았으나 그 사이에서도 어떠한 다른 희망을 찾은 이의 표정과도 같다.

S#8. 하천 산책로 돌계단 / 낮

혜경과 민현은 산책로에 있는 큰 돌계단에 거리를 두고 앉아있다.
돌계단 밑에는 작은 농구장 코트가 그려져있고
중고등학생들과 여러 사람들이 산책로에서 이리저리 움직인다.
햇빛에 윤슬이 빛나는 하천과 물결의 마찰소리에 혜경과 민현은 멍때리며 풍경을 바라본다.
혜경은 하늘을 올려다본다.
해가 점차 서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밝은 하늘 풍경.
혜경과 민현은 멍때리며 풍경을 바라본다.

민현　　오늘 하늘 정말 예쁘네요.

혜경　　그러게요.

민현　　윤슬도 진짜 예쁘다. 윤슬 보는거 좋아하세요?

혜경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민현　　이 산책로 정말 좋아요. 마음 헛헛할 때마다 오면 정말 다 잊을 수 있는… 그런 느낌?

혜경　　그런 거 같네요.

멍하니 풍경을 바라보는 혜경과 민현.

민현　　저도 한때 하늘을 나는게 꿈이었는데.

혜경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다)

민현　　그런데 보통 비행이라고 얘기하는데, 활공이네요.

혜경　　비행은 평범하고 딱딱해서요. 별로예요.

민현　　그런 거 같네요.

혜경은 멍하니 하천의 풍경을 바라본다.
그러던 중 돌계단에 기대놓은 민현의 백팩이 무게중심을 잃고 주르륵 미끄러진다.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혜경과 민현 모두 가만히 백팩을 쳐다보는데,
혜경의 눈길을 끄는 하나의 키링.
영화 슬레이트 모양의 키링이다.

혜경　　(여전히 키링에 시선을 두며) 그쪽 꿈은요? 뭐예요? 아까 얘기를 못 들은거 같은데.
민현　　제 얘기하기 전에 모임이 파토가 나버려서 못 말했네요. 저는 영화 찍는게 꿈이예요.
혜경　　영화….
민현　　(혜경이 바라본 영화 슬레이트 키링을 만지작 거리며) 거장 감독이 되는거. 웃기죠? 영화시장 이미 다 망했는데 무슨 감독이 되겠다고. 영화를 만들고 싶기는 한데 영화 찍을 돈도 없고 능력도 그다지 없어요. 아이러니하죠?
혜경　　꿈이라는 게 그런거죠 뭐.
민현　　무모한 거요?
혜경　　뭐든요.

INSERT
농구장 코트에서 경기를 하고 있는 중고등학생들.
주황색 농구공이 코트 바닥에서 통통 튀며 경쾌한 소리를 낸다.

골을 넣으려다 실패해서 혜경과 민현이 앉아있는 돌계단으로 넘어오는 농구공.
농구공은 혜경과 민현 사이에 놓인 백팩으로 향한다.
정확히는 영화 슬레이트 키링이 있는 부분으로.
그리고 순발력으로 혜경은 영화 슬레이트 키링이 공에 맞지 않도록 농구공을 잡는다.
얼떨결에 농구공을 손에 쥐게 된 혜경.
농구장 코트에서 손짓하며 농구공을 던져달라고 얘기하는 학생들.
혜경은 두 손으로 농구공을 쥔 채 민현을 쳐다본다.
민현은 농구장 코트 쪽으로 손짓하며 편하게 던지라는 뉘앙스를 취한다.
혜경은 엉성한 자세로 농구공을 농구장 코트 쪽으로 던진다.

던진 농구공을 학생이 정확하게 받고는 엄지척을 들어보인다.
마침내 웃는 혜경.

민현　　저 고등학교 때 건물 옥상 올라가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 맨날 시간 날때마다 높은 옥상에 올라가있었죠. 옥상에 거의 백 번도 넘게 올라갔었는데, 그 중 구십프로는 항상 어른들한테 혼났죠. 추락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며 끝없는 잔소리를 들었었는데….

이야기를 하던 중 민현은 돌계단에서 일어나 바지를 턴다.
그런 모습에 혜경은 민현을 올려다보다 본인도 같이 일어난다.
민현은 저멀리의 하늘을 바라본다.
민현의 시선을 따라 같이 하늘을 보는 혜경.

민현　　근데요, 어른들 생각이랑 제 생각은 정말 달랐어요. 저는 추락할 생각이 아니라, 날아갈 생각이었어요. 날아가고 싶다는 생각… 꿈을 이루고 싶었던 생각이요.

민현은 백팩을 챙겨 돌계단 밑으로 내려와 산책로에 발을 닿는다.
혜경도 민현을 따라 산책로에 발을 닿게 한다.
운동화 밑창 앞코부터 산책로 바닥에 닿으며 마침내 모든 밑창 바닥이 산책로에 닿는 모습.
혜경과 민현은 나란히 서있다.

혜경　　…그러다 진짜 추락하면요.

S#9. 하천 산책로 / 낮

발걸음을 때는 민현. 민현과 혜경은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걷는다.
민현의 운동화 부분이 포커스 된다.
운동화 밑창 앞코가 닿았다가 모든 부분이 닿았다가 다시 앞코부터 떼지는 모습.
민현과 혜경은 본인의 운동화가 닿는 산책로 바닥으로 보며 걷는다.

민현　　추락하더라도, 끝이 착지라면 되지 않을까요.
혜경　　(고개를 들어 민현을 바라보며) …네?

민현　　(발걸음을 멈추고 뒤돌아 혜경을 바라보며) 추락하더라도 착지하면 되죠.
그러면 아무리 추락이라도 성공적인 활공을 한거예요.

혜경　　….

민현　　그리고, 추락 말고 새들이 날개짓 없이 하늘을 나는 것, 그것도 활공이래요.

혜경은 민현을 멍하니 바라본다.
민현은 다시 발걸음을 떼 걷기 시작한다.
혜경은 약간의 충격을 받은 듯 억지로 발걸음을 옮긴다.
운동화 밑창이 산책로 바닥에 끌리는 모습과 소리.

민현　　누구는 추락이라 할지라도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활공을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내 활공은 다를 수 있죠. 추락이 아닌 자유로운 비행,
혹은 날개짓을 끝낸 꿈 같은거요.

혜경은 민현의 말을 들으며 천천히 뒤따라간다.
혜경의 시야에 보이는 민현의 백팩,
그리고 달랑달랑 움직이는 영화 슬레이트 키링.
민현의 발걸음 소리에 따라 영화 슬레이트가 탁탁 쳐지는 모습. .

민현　　그러면 적어도 쓸데없이 무모하거나 허황된 건 아니니까요.

키링이 흔들리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는 혜경.
민현은 슬쩍 고개를 돌리며 혜경을 바라본다.
왜인지 본인의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딴짓하는 것만 같은 모습의 혜경.
민현은 조금 더 고개를 돌려 혜경의 시선을 따라가 본다.
그곳에 있는 본인 백팩의 키링.
민현은 이를 알아차리고 갑자기 산책로를 뛰기 시작한다.
혜경의 시야에 있던 백팩의 키링이 갑자기 더욱 강렬하게 흔들리며 혜경으로부터 멀어진다.
혜경은 갑자기 달라진 본인의 시야에 앞을 바라본다. 산책로를 가볍게 뛰고 있는 민현.
혜경은 당황해하며 앞뒤좌우를 살펴보다가 눈치껏 민현을 따라 산책로를 뛰기 시작한다.
민현과 혜경이 뛰는 풍경을 보여준다.
작은 다리를 지나 뛰어가는 둘.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린다.

어느정도 뛰자 민현은 뛰는 걸음을 멈추고 뒤에서 뛰어오는 혜경을 바라본다.
가볍게 뛰어오고 있는 혜경.
민현과 가까워지자 혜경 또한 멈춰선다.
혜경은 민현을 가만히 바라보며 가쁜 숨을 몰아내쉰다.
그런 혜경을 보고 본인도 숨을 가다듬으며 얘기한다.

민현　　어때요?
혜경　　네? 뭐가요?
민현　　활공하는 거요.

혜경과 민현의 투 샷에서 화면이 전환된다.

S#10. 건물 옥상 / 초저녁
곧 노을이 질 듯이 조금씩 붉게 물들고 있는 파란 하늘.
옥상 바닥에 펼쳐진 채로 놓인 하나의 두꺼운 책,
혜경의 <활공하는 방법> 책이다.
강한 바람에 제멋대로 넘겨지는 페이지.

민현(V.O)　　이제 해요. 그쪽만의 활공을요. 원하는 데에 다다를 때까지. 제가 응원할게요.

책 <활공하는 방법>을 비추고 있던 화면이 서서히 올라가
옥상 끄트머리에 서있는 혜경의 모습을 비춘다.
강한 바람을 온몸으로 맞고 있는 혜경.
그러다 혜경은 고개를 내려 저 아래 풍경을 바라본다.
아득하게 먼 땅.
자막과 함께 혜경의 목소리로 나레이션이 나온다.

NA. 추락하더라도 착지

혜경은 다시 고개를 올려 한 손을 저멀리 올려 하늘과 가까이 한다.
혜경의 나레이션이 자막과 함께 진행된다.

NA. 무모할지라도 활공

옥상 풍경을 멀리서 비추며 혜경의 모습과 책이 모두 화면에 담긴다.
책은 바람에 이리저리 치이다가 결국 덮인다.
책 제목 클로즈업. <활공하는 방법>

혜경(V.O)　　너만의 활공

다시 화면이 올라가 하늘을 비춘다.
아까보다 더욱 붉게 물든 푸른 하늘.
하늘에 띄워지는 자막.

‘무모한 꿈을 쫓아 온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이내, ‘무모한’이라는 자막 부분만 점차 흐려져 지워지고 다음 문장으로 바뀐다.

‘소중한 꿈을 쫓아 온 모든 이들에게’

The End.

소설

Fiction

소설 | 장려상

〈[비고: 미상]〉

윤예현

제목: [비고: 미상]

80년의 세월을 고작 수백 메가바이트짜리 엑셀 파일로 압축하는 일은 폭력적일 만큼 고요했다. 대학본부 3층 구석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 개교 80주년 기념 기록물 정리라는 거창한 명목 아래 내가 하는 일은, 교직원이 넘겨준 무작위의 과거들을 모니터에 띄우고 납작한 엑셀 표의 격자 안에 끼워 넣는 것이었다. 흐린 눈으로 무심히 스크롤을 내리자 검은 활자들이 빠르게 위로 밀려나고, 이내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흰 셀들이 화면을 채웠다. 나는 공백의 첫머리에서 마우스 휠을 멈췄다. 오늘 내가 채워야 할 첫 번째 빈칸이었다.

IMG_misc_2340

별다를 것 없는 파일명이었다. 나는 셀에 적힌 번호를 따라 폴더를 열고 같은 이름의 사진을 찾아냈다. 날짜는 24년도 겨울의 어느 날, 렌즈는 빛 번짐을 잔뜩 머금고 있었다. 나는 습관처럼 Alt와 Enter를 눌러 파일 정보를 띄웠다가 이내 창을 닫고 엑셀의 빈칸을 마주했다.

[장소: 미상]
[인물: 미상]
[비고: 확인 필요]

수천 장의 사진을 넘기며 내가 깨달은 아카이브의 속성은 하나였다. 데이터는 감정을 보관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카메라 렌즈 앞에서 어깨를 겯고 웃어 젖히던 사람들도, 이 차가운 표의 표면에 기입되는 순간 하나의 건조한 피사체로 전락하고 만다. 시절인연이 끝난 자리에 남는 것은 희미한 그리움이 아니라 이토록 완벽하게 박제된 몇 메가바이트의 픽셀 덩어리뿐이라는 사실을 떠올릴 때면, 번뜩 마음이 서늘해졌다. 마우스 휠을 굴려 다음 파일로 넘어가려던 찰나, 검지를 덮고 있던 낡은 플라스틱 휠이 헛도는 소리를 내며 흔들리는 커서가 한 지점에 머물렀다. 낡은 모니터를 거쳐 열화된 사진처럼 뿌옇게 보이는 사진, 그 흐릿한 실루엣들 사이로 느껴지는 낯익은 형태가 자연스레 시선을 사로잡았다. 약간의 경사가 느껴지는 보도블록, 앙상한 겨울 나무, 그리고 어깨를 움츠린 채 비스듬히 서 있는 인물. 이목구비는 빛에 날아가 분간조차 어려웠지만, 코트 주머니에 찔러 넣은 삐딱한 손의 각도와 기울어진 어깨선만으로도 나는 단번에 그가 누군지 알아보았다.

P였다.

P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걸었던 2024년 12월의 어느 날, 특별히 다투거나 서로에게 상처를 낸 적도 없는데, 그저 각자의 시간표와 졸업, 취업이라는 핑계들이 겹치며 눈송이가 녹듯 아주 미적지근하게 증발해 버린 시절인연 중 하나였다. 나는 홀린 듯이 단축키를 눌러 사진을 끝까지 확대했다. 모니터 앞으로 얼굴을 바짝 들이밀고 미간을 좁혔다. 흐릿하던 형체에 초점이 잡히는 순간, 숨이 턱 멎었다. 사진이 단순히 초점이 나가 흐려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P의 바로 옆자리, 누군가 한 명쯤 충분히 서 있었을 그 공간의 픽셀들이 물속에 잠긴 것처럼 기괴하게 우그러져 있었다. 포토샵의 '내용 인식 채우기' 기능이 남긴 끔찍한 흉터였다. 렌즈 안으로 들어온 어떤 피사체를 강제로 도려낸 뒤, 주변의 겨울 나무와 시멘트 바닥의

패턴을 억지로 끌어다 빈자리를 덮어버렸을 때 생기는 인위적인 오류. 알고리즘은 누군가를 지워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텅 빈 공간의 문맥을 자연스럽게 꿰매는 데는 완벽히 실패한 채 소용돌이치는 픽셀의 잔해를 남겨두고 있었다.

누가, 도대체 왜 이 사진 속에서 사람을 통째로 도려냈단 말인가.

그날 오후 여섯 시, 근로를 마치고 본부 건물을 빠져나와 정문 쪽으로 걸어 내려가는 내내 머릿속은 그 기괴하게 뭉개진 픽셀의 소용돌이로 가득 찼다. 위에서 아래로 쏟아지듯 이어지는 캠퍼스 정문의 가파른 경사를 따라 걷다 보면, 무릎 관절로 전해지는 뻐근한 하중만큼이나 과거의 시간들 역시 저 아래로 거세게 휩쓸려 내려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정문 앞 사거리의 프랜차이즈 카페, 졸업을 유예한 채 관성적으로 토익 책을 들여다보고 있던 K는, 맞은편에 앉은 나를 향해 밍밍해진 아메리카노의 얼음을 빨대로 휘저으며 고개를 들었다. 빨대를 쥔 K의 검지손톱 큐티클이 거칠게 일어나 있었다. 나는 가방을 내려놓기가 무섭게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에 띄워둔 문제의 사진을 K의 눈앞으로 바짝 밀어 넣었다.

"오늘 기록물을 정리하다가 이걸 찾았어. 2년 전쯤,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 같이 모였던 날."

K가 눈을 가늘게 뜨고 액정을 들여다보았다. 나는 그 입에서 어떤 말이 튀어나올지 숨을 죽인 채 기다렸다. P의 옆에서 지워진 저 기이한 흉터에 대해 K라면 무언가 실마리를 쥐고 있을 것만 같았다.

"아, 이거 그날이네."

K의 입꼬리가 호선을 그리며 부드럽게 올라갔다.

"이날 진짜 재밌었는데. 누가 바보같이 과방에 뭐 두고 왔다고 그 높은 데까지 올라갔다가 학교 앞에서 치맥하고, P 자취방까지 가서 밤새 술 마셨잖아. 배달 음식도 엄청 시켜놓고 썰도 엄청 풀고. 맞다, 그때 P도 시험 붙었다고 고삐 풀고 놀았잖아."

K의 목소리는 카페에 흐르는 스트리밍 음악처럼 티 없이 맑고 평온했다. 나는 빨대를 휘젓는 K의 손가락과 사진을 번갈아 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재밌었다고.

머릿속에서 파열음이 일었다. 내 기억 속 그날의 공기는 결코 그렇게 명랑한 색채가 아니었다. 이미 우리 사이의 대화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누구 하나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자는 말을 꺼내지 못해 억지로 겉도는 농담만을 비탈길의 찬 바람 속으로 무의미하게 던지던 날이었다. P는 종일 시선을 허공에 둔 채 피곤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우리는 서로의 미적지근한 권태를 애써 모른 척하며 간간이 불어나는 침묵의 부피를 견뎠다. 그날의 기억을 더듬으면 가장 먼저 되살아나는 것은 무슨 말을 했는지가 아니라, 오래 식힌 물처럼 서늘하고 밋밋했던

공기의 온도였다.

그러나 말간 눈으로 비스듬하게 올려다보고 있는 K의 눈동자 속에는 그 어떤 이질감도 없었다.

"야, 그때 사진 보니까 진짜 그립다. 다들 아무 걱정 없이 몰려다녔는데."

K의 미소를 마주하는 순간, 나는 소름 돋는 가설 하나가 머릿속에 떠올랐다. 어쩌면 K의 뇌는 상실이 주는 스트레스와 관계가 식어갈 때의 그 지독한 어색함을 피하기 위해, 과거의 기억을 스스로 맹렬하게 보정해 버린 것은 아닐까. 어둡고 껄끄러웠던 감정의 노이즈들을 매끄럽게 밀어버리고, 그 자리에 '완벽한 우정'이라는 밝고 따뜻한 색감의 가짜 필터를 덧씌워 기억의 문맥을 그저 덮어버렸을지도 모른다. 사진 속에서 P의 옆자리를 기괴하게 메우고 있던 포토샵의 '내용 인식 채우기'가 K의 머릿속에서도 꼭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렇게 K에게 있어 우리의 2년 전 겨울은, 불쾌한 피사체가 말끔히 도려내진 아주 완벽하고 평온한 풍경화로 완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기억이 조작된 가짜라고, K가 틀렸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 같은 날 같은 비탈길을 걸었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히 똑같은 하루를 가지진 않았을 것이다.

나는 K의 앞을 가로막고 있던 스마트폰을 천천히 내 쪽으로 거두어들였다. 다시 사진을 바라보니 일그러진 픽셀의 소용돌이가 나를 비웃듯 쳐다보고 있었다. K의 기억이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 과거의 진실을 노이즈 처리하여 지워버렸다면, 이 디지털 사진을 훼손하여 누군가를 강제로 프레임 밖으로 쫓아낸 주체는 과연 누구인가. 아니, 어쩌면 질문의 방향이 틀렸는지도 모른다. 나는 액정 표면에 비친 내 흐릿한 얼굴을 노려보았다. 모두가 렌즈를 향해 다정하게 웃어야 마땅한 순간에, 홀로 감정의 온도를 잃고 차갑게 식어버려 한낱 배경의 잡음(Noise)으로 판독된 사람, 그리하여 주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그리고 저 무자비한 디지털의 프레임 안에서조차 불필요한 피사체로 분류되어 가장 먼저 도려내진 오류 픽셀의 주인은 누구였는가. 가슴 한구석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불안이 비탈길의 바람처럼 거세게 밀려 올라오기 시작했다.

학생회관으로 향하는 언덕은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가팔랐다. 캠퍼스의 등고선을 밟고 오르는 내내, 타인의 서사에서 추방당한 나의 물리적 실체는 오히려 그 중력을 끔찍할 만큼 무겁게 감각하고 있었다. 허벅지 근육이 비명을 질렀고, 목구멍에서는 쇳소리가 났다. 고도가 높아질수록 2026년 가을의 서늘한 공기와 2024년 겨울의 매서운 바람이 머릿속에서 어지럽게 뒤섞였다. "너 그날 중간에 갔지 않았어?" 언젠가 J가 무심한 얼굴로 뱉었던 말이 K의 명랑한 목소리와 뒤엉켜 귓가를 때렸다. 그들의 목소리는 무자비한 압축 프로그램처럼 내 기억을 짓눌러왔지만, 내 안의 데이터들은 끝끝내 항복을 거부하고 있었다. 나는 내가 그날 중간에 돌아가지 않았음을 안다. 나는 그날 저녁 치킨집의 기름진 테이블 구석에 앉아 묵묵히 물잔만 만지작거리던 내 손끝의 감각을 기억한다. 맞은편에 앉은 P가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다른 애들과 떠들 때, 혀뿌리에 고이던 지독한 쓴맛까지도.

숨을 헐떡이며 마침내 학생회관과 음악관 사이로 꺾어 들어가는 보도블록에 도착했다. 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액정 위에 그 기괴하게 훼손된 사진을 띄운 채, 렌즈가 바라보았을 시선과 내 눈앞의 풍경을 투명한 셀로판지처럼 겹쳐 보았다. 오른쪽으로 비스듬히 기울어진 보도블록, 허리 높이의 낡은 철제 난간. 정확히 이 각도였다.

나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휴대폰의 사진 앱을 열었다. 타인들이 얄팍한 JPG 파일로 보정해 버린 과거에 맞서려면, 한 번도 가공되지 않은 날것의 시간, 비대한 용량을 차지하고 있는 나의 원본을 찾아야만 했다.

스크롤이 무서운 속도로 과거를 향해 역류했다.

2025년, 2025년 여름, 그리고 2024년 겨울.

수백 장의 썸네일이 눈앞을 스쳐 지나가는 동안 내 손가락은 쉴 새 없이 화면을 쓸어 올렸다. 사진첩의 가장 깊은 곳, 시스템의 최적화 알고리즘조차 건드리지 못한 채 처박혀 있던 데이터의 심연이었다. 마침내 스크롤이 어느 한 지점에서 덜컹, 멈춰 섰다. 낯익은 겨울 나무와 비스듬한 길, 그리고 IMG_20241227_164012_486.jpg. 본부 3층 컴퓨터에서 보았던 엑셀 속 파일명과는 전혀 달랐다. 학교의 아카이브로 흘러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름이 새로 붙은 모양이었다. 그러나 썸네일 속 인물들의 배치와 기울어진 보도블록, P가 서 있는 위치는 같았다. 단체 대화방을 거치며 얄팍하게 압축된 사본과 달리, 촬영 당시 내 기기 안에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던 원본 파일이었다. 이미지가 화면에 꽉 채워지며 렌더링되었다. 빛 번짐은 존재하지 않았고, 빈자리를 억지로 끌어다 덮어버린 기괴한 소용돌이도, 누군가를 인위적으로 도려낸 흉터도 존재하지 않았다. 선명하고 차가운 화소들로 꽉 들어찬 프레임 안에는 P와 K와 J, 그리고 그 무리의 오른쪽 끄트머리에 위태롭게 내가 서 있었다. 나를 기억 속에서 추방해버렸던 J의 단호한 착각은 틀렸다. 나는 그날 도중에 돌아가지 않았다. 선명히 그 비탈길의 시간 속에 존재했었다. 밀려오려던 안도감은, 화면 속 내 얼굴을 향해 두 손가락을 벌려 확대한 순간 산산이 조각났다. 하마터면 쥐고 있던 휴대폰을 놓칠 뻔했다. 화면 속의 나는 웃고 있지 않았다. K와 J는 렌즈를 향해 환하게 웃고 있었고, P는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특유의 삐딱한 자세로 애매한 미소를 머금은 채 정면을 보고 있었다. 그러나 무리의 오른쪽 끝에 선 나는, 렌즈를 완전히 외면한 채 초점을 잃은 눈동자로 P의 뒷목 어딘가를 지독히도 무심하게 응시하고 있었다. 웃음기는 단 1퍼센트도 없었다. 무방비하게 굳어버린 서늘하고 피로한 안면 근육과 톡방에 공유되며 저하된 해상도에서는 뭉개져 보이지 않던 나의 텅 빈 표정이, 원본의 해상도 안에서 너무나도 까슬하게 그날 돋아난 감정을 드러내고 있었다. 함께 있는 사람들을 향한 애정이나 미련 따위는 남김없이 타버리고, 오직 바닥 모를 권태와 서운함만이 차갑게 식어 눌러붙은 얼굴이었다. 불과 한 뼘의 물리적 거리였지만, 정서적 고도는 이미 까마득한 벼랑 끝이었다. 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그 차가운 얼굴을 망연히 들여다보았다.

그 순간, 화면 하단에 작게 떠 있는 단어가 시야에 들어왔다. 모션 포토 재생하기. 학교의 아카이브와 K의 갤러리에서는 가위질 당한 채 한 장의 정지된 이미지로 납작하게 굳어 있던 사본과 달리 원본에는 셔터가 눌리기 전후의 몇 초가 아직 숨을 죽인 채 남아 있었다. 나는 마른침을 삼키며 화면을 길게 눌렀다. 납작하게 박제되어 있던 찰나의 앞뒤가 부드럽게 펼쳐지며 영상이 재생되었다. 앙상한 겨울 나뭇가지가 바람에 한 번 크게 흔들리고 J의 어깨가 프

레임 안으로 쑥 밀려 들어오며 K와 부딪혔다. K가 고개를 돌리며 눈을 마주친 후 J를 붙잡고 환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멋쩍어하는 연기를 하던 J는 이내 볼우물을 패며 마주 웃었고, 그 옆에선 P가 아래를 바라보며 누구에게 말하는지 모를 말을 벙긋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오른쪽 끝에서 돌덩어리처럼 굳어 있던 한 사람이 움직였다. 불과 1초 남짓한 순간이었다. 화면 속의 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없이 웃고 있었다. 느닷없이 불어오는 매서운 바람 때문인지, 아니면 J의 실없는 장난 때문인지, 전해지지 않는 P의 말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나는 분명 K 못지않게 환하게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그러나 이내 P가 무언가를 더 말하며 고개를 들자, 화면 속의 나 역시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그와 동시에 웃음이 사라졌다. 시선이 렌즈를 벗어나 P의 뒷목을 향해 멈췄다. 방금 전까지 얼굴에 번져 있던 명랑한 기색이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 내렸다. 무방비한 권태가 얼굴을 덮으며, 순간이 영원 속에 박제되었다. 화면에는 조금 전과 똑같은 서늘하고 텅 빈 내 얼굴만이 남아 있었다.

나는 얼어붙은 듯 그 멈춰진 화면을 내려다보았다. 정지된 사진은 내가 무리에서 스스로 마음을 거두고 관계의 종말을 선고한 비겁한 자라고 작게 아우성치는 듯했다. 그렇다면 어느 쪽이 진짜 내 모습인가. P를 향해 차갑게 마음을 닫아버린 얼굴인가, 아니면 찬 바람 속에서도 무리에 섞여 환하게 웃어보려 애쓰던 얼굴인가. 당연하게도, 둘 다 나였다. 사진 한 장이 그날의 완벽한 진실이라고 믿기에는, 셔터는 너무도 가혹하고 정확한 순간에 닫혀 있었다. 기계의 렌즈는 시간의 연속성을 무자비하게 절단하여 가장 껄끄럽고 위태로운 단초만을 잘라냈고, 그렇게 얇게 저며진 단면은 K에게 공유되고 행정실의 엑셀로 흘러 들어가 영원한 증거로 굳어버렸다. K의 뇌는 관계가 식어가던 어색함을 지워버리고 완벽하게 즐거웠던 기억만을 남겼다. 반면 카메라는 내가 웃고 있던 순간을 지워버리고 완벽하게 차가웠던 표정만을 남겼다. 기록의 알고리즘과 인간의 기억은 이토록 똑같은 방식으로 과거를 오독하고 편집한다. 사진은 끝내 나를 위해 명확한 인과관계를 설명해 주지 않았다. 오히려 사진은 그 접혀 있던 1초의 시간을 내게 툭 던져놓으며, 내가 확신하려 했던 진실마저 완전히 흩트려 놓았다. 증거는 주되 해석은 온전히 나의 몫으로 내팽개쳐 둔 것이다.

나는 더 이상 화면을 누르지 않았다. 굳게 닫힌 정지 화면 위로, 무겁게 가라앉은 늦가을의 하늘이 희미하게 비쳤다. 캠퍼스의 가파른 내리막을 타고 밀려 내려온 바람이 뺨을 거칠게 쓸었다. 액정 위로 후둑, 차가운 물방울이 떨어졌다. 나는 화면 속에서 오류 픽셀로 전락하기 직전의, 몹시도 외롭고 차가워 보이는 2년 전의 내 얼굴을 엄지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어 보았다. 압축이 풀려버린 진실의 모호함이, 그 어떤 명확한 결론보다도 무겁게 비탈길 위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훼손되지 않은 원본의 비대한 질량은 이토록 버거운 것이었다.

본부 3층 구석의 임시 사무실로 돌아온 것은 다음 날 오후였다. 책상 위에는 어제 켜두었던 컴퓨터가 절전 모드로 까맣게 잠들어 있었다. 마우스를 가볍게 흔들자, 눈이 시리도록 하얀 엑셀의 격자 화면이 모니터 위로 깨어났다. 커서는 여전히 'IMG_misc_2340'의 텅 빈 인물란에서 얇은 실선으로 깜빡이고 있었다. 이제 나는 모든 빈칸을 완벽하게 채워 넣을 수 있게 되었다.

[장소: 음악관 옆 오르막]
[인물: J, K, P, 그리고 I]

[비고: 내용 인식 채우기로 삭제된 피사체 복원 완료]

키보드 위에 두 손을 올렸다. 이대로 타자를 치고 저장 버튼을 누른다면, 나는 조작되어 버린 과거를 바로잡고 80년짜리 아카이브에 가장 완벽한 진실 한 장을 헌납하게 될 터였다. 하지만 손가락은 자판 위에서 굳은 채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내가 이 엑셀 표에 나의 존재를 명확하게 기입하는 순간, 서늘하고 피로했던 그날의 감각들은 다시 한번 몇 메가바이트짜리 건조한 데이터로 압축되어 버린다. P를 향해 식어가던 나의 참담한 권태도, 타인의 프레임에서 도려내질 때 발생했던 픽셀의 비명 소리도, 모두 저 반듯한 사각형의 감옥 안으로 영원히 박제되고 마는 것이다. 나는 엑셀 파일과 함께 띄워둔 오류투성이의 사진을 번갈아 보았다. 기괴하게 일그러진 빈자리, 포토샵의 흉터. 오히려 그 기형적인 공백이야말로, 우리가 한때 열렬하게 가까웠으나 끝내 미지근함을 거쳐 차갑게 멀어져 버렸음을 증명하는 유일하고도 생생한 진실이었다. 나는 그 상처를 활자로 봉합하고 싶지 않았다. 타닥, 나는 방향키를 눌러 셀을 이동했다. 그리고 Delete 키를 눌렀다.

[장소: 미상]
[인물: 미상]
[비고: 미상]

미상(未詳). 확실하거나 분명하지 않음. 혹은 섣불리 단정 짓지 않기로 한 미완의 흉터. 나는 그 모호함을 기꺼이 남겨두는 쪽을 택하며 모든 정보를 지워버렸다. K의 명랑한 거짓도, J의 따가운 착각도, 그리고 내가 찾아낸 섬뜩한 원본의 진실마저도 모두 저 뭉개진 픽셀의 소용돌이 속에 내버려 두기로 했다. 기록을 포기함으로써, 역설적으로 나는 나의 가장 아픈 기억을 온전하게 지켜냈다.

마우스 휠을 굴려 IMG_misc_2340 파일을 완전히 닫았다. 가슴을 묵직하게 짓누르던 덩어리 하나가 비로소 쑥 빠져나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길게 숨을 내쉬며, 다음 작업 대상인 IMG_misc_2341 파일을 더블클릭해 화면에 새로운 사진을 띄웠다. 이번에는 1990년대 후반즈음으로 추정되는 필름 카메라의 스캔본이었다. 오래된 중앙도서관 계단에 대여섯 명의 학생들이 촌스러운 청자켓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나는 습관처럼 엑셀의 빈칸을 채우기 위해 사진의 가장자리로 시선을 옮겼다. 그리고 그 순간, 심장이 또다시 덜컹 내려앉았다. 빛바랜 필름 사진의 좌측 구석, 환하게 웃고 있는 무리의 가장자리 공간이, 마치 불에 그을린 것처럼 혹은 약품이 번진 것처럼 기괴하게 녹아내려 있었다. 디지털 시대의 '내용 인식 채우기' 기능이 등장하기도 훨씬 이전인 아날로그 사진이었지만, 그 흉터의 모양은 내 사진 속에 남아 있던 일그러진 빈자리와 너무도 닮아 있었다. 그 기형적인 공백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는 동안, 기묘하게도 어깨를 짓누르던 묘한 긴장감이 조금씩 흩어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저 빛바랜 1990년대의 사진 속에서도 누군가는 무리에서 겉돌며 서서히 배경으로 물러났을 것이다. 누군가는 프레임 밖으로 밀려나고, 누군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 얼룩을 덮으며 다음 계절을 맞았을 터였다.

나만이 유독 서툴렀거나, 우리만이 싱겁게 바래진 것이 아니었다. 관계의 온도가 식어가는 과정은 시대를 불문하고 엇비슷하게 짓물러진 흉터를 남긴다. 서로의 프레임에 우리는 잠시

선명하게 맺혔다가도, 이내 서서히 초점이 어긋나며 흩어지고 만다.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틈새를 조명하는 것은 거창한 기록이나 역사가 아니다. 그것은 매정하게 흘러가는 시간과, 그 속에서 끊임없이 마모되는 불완전한 인간, 그리고 선명하고도 흐리게 덧칠해진 찰나의 순간들이다. 그렇게 서로의 삶에 남겨진 미상의 흉터들이야말로, 인간사의 가장 솔직하고 시린 밑그림이다.

창밖을 내다보았다. 캠퍼스의 가파른 오르막을 밀고 내려온 서늘한 가을바람이 낡은 창틀을 흔들었다. 저 비탈길을 오르내렸을 80년 치의 수많은 발걸음과 엇갈린 시선들이 바람 속에서 희미하게 흩어지고 있었다. 거대한 시간은 엑셀 시트 위에서 몹시 납작하고 무력해 보였지만, 그 반듯한 격자 이면에는 이토록 뼈아프게 지워지고 뭉개진 채 영원히 미상으로 남을 수많은 오류와 노이즈들이 벼랑 같은 깊이를 품고 숨 쉬고 있었다.

퇴근 시간을 알리는 휴대폰의 거친 진동이 책상을 울렸다. 나는 모니터 전원을 끄고 가방을 챙겨 밖으로 나섰다. 1990년대의 이름 모를 누군가가 남겨둔 흉터는 암전된 액정 너머로 가만히 묻어두기로 했다. 문을 열고 나서자, 해가 짧아진 가을의 초저녁 어스름이 넉넉한 터 위를 묵직하게 내리누르고 있었다. 정문을 향해 내려가는 비탈길은 언제나처럼 무릎에 뻐근한 하중을 실었다. 그러나 발걸음은 묘하게 홀가분했다. 그것은 정답을 찾지 못한 채 엉켜버린 7.64메가바이트짜리 원본을, 그 알 수 없는 모호함 그대로 오롯이 짊어지기로 결심한 뒤에 찾아온 기이한 후련함이었다.

정문을 벗어나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횡단보도 앞. 신호를 기다리며 무심코 고개를 돌리던 나는 젖은 아스팔트 위에 작게 못 박힌 듯 멈춰 섰다. 두어 뼘 남짓한 거리, 나와 똑같이 신호등의 붉은 숫자가 줄어들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베이지색 캔버스화에 검은색 슬랙스, 약간 구부정하게 굽은 어깨. P였다. 픽셀 단위로 쪼개지며 뭉개지거나, 베일 듯이 날카로운 모션 포토 속에서만 재생되던 그 피사체가 아니었다. 취업 준비의 피로가 얇게 내려앉은 피부, 바람에 헝클어진 뒷머리. 그것은 2026년 가을의 현실적인 중력을 고스란히 받고 서 있는, 지극히 평범하고 온전한 타인의 얼굴이었다. 시선을 느낀 P가 이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허공에서 건조한 시선이 서로 얽혔다. 미세한 당혹감이 P의 눈동자에 스치고 지나갔으나, 녀석은 이내 익숙하고도 둥근 미소를 지어 보였다.

“어, 안녕. 진짜 오랜만이네.”
“그러게. 학교엔 웬일이야?”

내 목소리는 스스로 듣기에도 놀라울 만큼 평온했다. 며칠 내내 일그러진 사진을 부여잡고 미친 사람처럼 과거를 해부했던 것이 무색해질 지경이었다.

“아, 지도교수님한테 서류 받을 게 좀 있어서. 너는 여전히 학교 다니고?”
“본부 행정실에서 근로 장학생 해. 80주년이라고 옛날 사진들 엑셀로 정리하는 거.”
“아, 동문 메일로 온 거 봤어. 빡세겠다.”

대화는 매끄러웠다. 우리는 각자의 일상을 묻고, 취업 시장의 팍팍함을 안주 삼아 적당한

탄식을 내뱉었다. P와 나란히 서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녀석의 왼쪽 어깨 너머를 힐끗 응시했다. 사진 속에서 픽셀이 기괴하게 소용돌이치며 나를 억지로 도려냈던 바로 그 자리였다. 하지만 지금 P의 옆 공간은 일그러진 흉터 따윈 없이 그저 자연스럽기만 했다. 서늘한 바람이 지나가고, 낯선 행인들이 그저 무심히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P의 현실 프레임 속에서 나는 이미 오래 전에 완전무결하게 삭제되었고, 녀석의 세상은 나라는 노이즈 없이도 이토록 평온하고 견고하게 굴러가고 있었다. 초록불이 켜졌다. 우리는 사람들의 물결에 떠밀리듯 횡단보도를 건넜다. 역으로 내려가는 길목 앞에서, 방향이 다른 우리는 자연스럽게 걸음을 멈추고 서로를 마주 보았다.

"반가웠어. 근로 무사히 잘 마치고."
"응. 너도 서류 준비 잘하고."

인사를 마친 P가 몸을 돌려 계단 쪽으로 한 걸음 내디뎠다. 그리고 무언가 잊은 것이라도 있다는 듯, 다시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우리, 언제 밥이나 한번 먹자."

건조한 바람이 얼굴을 쓰고 지나갔다. P의 입술을 빠져나온 그 평범한 문장이 늦가을의 서늘한 공기 속으로 툭 떨어져 내렸다.

"연락할게."

나는 녀석의 눈을 가만히 마주 보았다. 저 말은 캘린더의 빈칸에 날짜를 기입할 실제 약속이 아니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도 아니며, 얽혀버린 과거의 오해를 풀자는 제안은 더더욱 아니었다. 그것은 수명이 다한 관계의 끄트머리에 관성적으로 붙이는 가장 무의미하고도 안전한 마침표였다. 미련 없이 파일을 삭제할 때 시스템이 기계적으로 띄우는 확인 창 같은 것에 불과했다. P도 알고, 나도 안다. 우리는 영영 서로에게 연락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사실이 더 이상 아프거나 비참하게 다가오지 않았다. 오히려 한때 서로의 세계에서 가장 선명한 피사체였던 우리가, 이제는 서로에게 그 어떤 감정의 파동도 일으킬 수 없는 이토록 무해한 타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묘한 안도감을 주었다.

"응, 조심해서 가."

나 역시 모호함으로 녀석의 인사에 화답했다. 입꼬리만 슬쩍 들어올린 P가 가볍게 손을 흔들고는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녀석의 뒷모습이 지하철역의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삼켜질 때까지, 나는 제자리에 서서 그 텅 빈 공간을 오래도록 응시했다.

우리는 관계가 완전히 끝난 뒤에야 과거의 어느 평범했던 날에 마지막이라는 이름을 뒤늦게 가져다 붙인다. 하지만 관계의 숨통이 정확히 어느 비탈길에서, 어느 찰나의 표정에서, 어느 미적지근한 침묵 속에서 끊어졌는지는 끝끝내 알지 못한다. 우리는 그저 명확한 인과관계를 잃어버린 미상의 흉터들을 각자의 방식으로 견디며 살아갈 뿐이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나는 액정을 한 번 문질러 닦고는 돌아섰다. 지하철역을 등지고 다시 나의 궤도를 향해 걷기 시작했다. 완전히 어두워진 하늘 위로, 아직 이름 붙지 않은 무수한 시간의 픽셀들이 차갑고도 선명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

12월의 마지막 주, 시월광장 한가운데 세워진 새하얀 임시 전시관 안은 바깥의 날씨와 단절된 듯 쾌적하고 고요했다. 하얀 가벽을 따라 1950년대 효원교지의 흙먼지 날리던 입학식, 새 교사가 하나둘 들어서던 시절의 흑백사진, 민주화 시기의 교정, 유명 동문들이 후배들과 어깨를 겯고 찍은 화려한 기념사진들이 거대한 액자에 담겨 있었다. 빛 번짐이나 초점이 나간 피사체는 없었고, 프레임 바깥으로 밀려나 기괴하게 녹아내린 흉터 역시 존재하지 않았다. 인화지 속 인물들은 하나같이 렌즈를 향해 확신에 찬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이때는 진짜 다들 눈빛이 살아있네."
"이거 봐, 꽤 옛날 사진인데 엄청 깔끔하게 잘 찍혔어."

곁을 스쳐 지나가는 관람객들의 낮은 감탄사가 매끄러운 바닥 위로 흩어졌다. 그들의 시선은 액자 안의 결점 없는 역사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다. 나는 그들의 대화에 속으로 어떤 반박도 덧붙이지 않은 채 조용히 걸음을 옮겼다.

전시장의 마지막 코너, 금정산 자락을 등지고 효원교정의 비탈을 넓게 내려다본 1990년대 전경 사진 앞에 멈춰 섰다. 완벽하게 재단된 과거의 풍경 위로, 전시장 조명을 등진 내 텅 빈 얼굴이 옅게 맺혔다. 사진 속 완벽한 풍경에 불시착한 흐릿한 얼룩 같았다. 그때, 빗물 냄새를 머금은 누군가가 곁으로 다가와 섰다. 바닥을 향해 기울어진 젖은 우산 끝에서 물방울이 툭 떨어지는 순간, 매끄러운 유리창 표면에 낯선 이의 실루엣이 미끄러지듯 내 어깨와 겹쳐졌다. 우리는 굳이 서로를 돌아보지 않았다. 철저히 익명인 타인의 그림자가 내 그림자를 잠시 덮어쓰는가 싶더니, 이내 경계를 잃고 하나의 얼룩처럼 기묘하게 뭉개졌다. 좁은 간격 탓에 젖은 옷깃이 스칠 뻔하자, 그는 조심스레 한쪽 어깨를 좁히며 내게 공간을 내어주었다. 바로 그 작은 움직임에 전시장 천장의 조명 각도가 어긋나며, 유리창 위에서 하나로 엉켜 있던 두 개의 윤곽이 스르르 분리되었다. 그 찰나의 물리적 현상은 어떠한 소리도 없이 조용히 이루어졌다. 디지털 사진 속의 기괴한 소용돌이나, 억지로 배경을 끌어다 덮은 흉터 따위는 남지 않았다. 빛이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윤곽은 그저 물 흐르듯 미끄러지며 아무런 훼손 없이 각자의 온전한 경계를 되찾았을 뿐이다.

"다 봤어? 밥 먹으러 가자."

입구 쪽에서 누군가 그를 부르는 소리가 울렸다. 미세한 구둣발 소리와 함께, 내 어깨에 겹쳐 있던 타인의 실루엣이 프레임 밖으로 조용히 빠져나갔다. 어느새 다가왔다가 어느새 멀어

지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싱거운 찰나였다. 그가 떠난 텅 빈 유리창에는 다시 하나의 실루엣이 남았다. 무언가 뜯겨 나간 공백이나 상실감은 없었다. 순간, 며칠 내내 핏대를 세우며 과거의 사진을 해부하던 마음이 거짓말처럼 차분히 가라앉았다. 어쩌면 관계의 소멸이란 애초에 이런 질감일지도 몰랐다. 누군가 악의를 품고 서로를 거칠게 찢어발기거나 억지로 프레임 밖으로 추방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각자의 궤도가 달라졌고, 맞물렸던 계절이 다하여 그림자가 분리되듯 자연스럽게 흩어졌을 뿐이다. 그 비탈길에서 J, K, P와 함께 웃고 떠들며 찬 바람을 맞았던 시간마저 가짜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 영원하지 않다고 해서 무의미한 것은 아니니까. 비록 엑셀의 반듯한 격자 안에서는 이름 없는 노이즈로 뭉개져 버린다 해도, 내 삶의 한구석에 그들과 나란히 걸었던 눈부신 찰나가 존재했다는 사실만큼은 변함이 없다. 그것은 상처나 오류가 아니라, 내 청춘의 필름에 남겨진 다정하고도 애틋한 시절인연의 흔적이었다.

천막을 걷고 밖으로 나오자 늦가을의 차가운 비바람이 훅 끼쳐왔다. 먹먹하게 가라앉은 잿빛 하늘 아래, 가파른 비탈길을 오르내리는 사람들은 저마다 우산이나 두꺼운 겉옷 안으로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있었다.

"아, 비 다 젖잖아. 좀 더 붙어봐."
"미안, 미안. 앞이 안 보였어."
"지나갈게요, 잠시만요."

산개한 목소리들이 빗소리에 엉겨 붙었다가 이내 허공으로 흩어졌다. 젖은 어깨가 부딪히고, 누군가 흘린 짧은 사과가 빗소리에 섞여 사라지고, 물웅덩이를 밟는 둔탁한 소리들이 거칠게 섞였다. 서로에게 서로가 익명인 사람들, 하지만 이 소란스러운 풍경은 더 이상 무자비한 노이즈의 바다로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무수한 인연들이 기적처럼 스치고 겹치며 만들어내는, 몹시도 생생하고 역동적인 삶의 온기였다.

나는 그 비탈길 한가운데에 멈춰 서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카메라 앱을 열어 빗방울이 튀는 보도블록과 바쁘게 스쳐 가는 인영들을 향해 렌즈를 들었다. 화면 중앙으로 누군가의 형형색색 우산이 불쑥 끼어들었고, 렌즈 앞을 가로지르는 젖은 가방이 프레임을 가렸다. 억지로 흔들림을 잡거나 불청객이 빠져나가기를 기다리지 않았다.

찰칵.

화면 하단에 떠오른 썸네일을 눌렀다. 누구인지 형체를 알 수 없는 뭉개진 윤곽들과 사방으로 튀어버린 빗방울의 궤적이 선명하게 그려졌다. 억지로 누군가를 도려내거나 빈자리를 덧칠할 필요가 없는, 흔들리고 엇갈린 그대로 충분히 아름다운 한 장의 찰나였다.

[장소: 미상]
[인물: 미상]
[비고: 미상]

미상(未詳). 확실하거나 분명하지 않음.

사무실의 모니터 앞에서 이 단어를 입력할 때만 해도, 그것은 상처를 방어하기 위한 미완의 흉터에 가까웠다. 뭉개진 픽셀의 소용돌이 속에 엇갈린 진실들을 내버려 두고, 차라리 기록을 포기함으로써 가장 아픈 기억을 온전하게 방어하겠다는 오기에서 비롯한 흔적이었다. 하지만 다시 마주한 이 모호함은 이제 조금 다른 질감으로 다가왔다. 어쩌면 빈칸에 누군가의 이름을 명확히 적어 넣고 관계의 결말을 한 줄로 요약하려던 시도 자체가 무리였을지도 모른다. 수많은 온기와 권태가 엉켜 있던 우리의 시간을 단 몇 글자로 요약해 낼 비고란 같은 건 애초에 존재할 수 없으니까. 그 복잡하고 불완전했던 궤적에 억지로 인과를 따져 마침표를 찍으려다 보면, 결국 껄끄러웠던 진실의 일부를 잘라내거나 억지로 덧칠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 서사를 꿰매어 완벽한 결말을 짓는 대신, 자연스레 멀어져 버린 이 모호함을 그저 내 몫으로 끌어안고 가기로 했다. 이것은 거대한 아카이브의 매끄러운 역사에 편입되기를 거부한다는 거창한 선언이라기보다, 우리의 끝을 엑셀의 좁은 격자 안에 구겨 넣어 얄팍하게 압축해버리지 않겠다는 나만의 작은 다짐에 가까웠다. 억지로 빈자리를 덮거나 누군가를 지워내려 애쓰는 대신 짓무른 흔적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로 마음먹자, 지난한 날들 속에서 가슴을 짓누르던 원본의 묵직한 질량이 비로소 조금씩 흩어지는 기분이 들었다.

나는 화면을 끄고 휴대폰을 깊은 주머니 속에 찔러 넣었다. 차가운 비바람이 몰아치는 가파른 비탈길 위로 다시 걸음을 내디뎠다. 젖은 우산들이 위태롭게 교차하고, 물웅덩이를 밟는 둔탁한 발소리들이 빗소리에 엉겨 붙었다가 이내 허공으로 사라졌다. 렌즈 바깥의 세상은 액자 속의 풍경처럼 매끄럽지 않아서, 우리는 서로에게 익명인 채로 끊임없이 부딪히고 얽히며 이따금 서로의 어깨에 흐릿한 그림자를 남긴 채 각자의 궤도를 향해 멀어져 간다. 이 소란스러운 비탈길을 걷는 우리의 찰나가 훗날 누군가의 프레임 밖으로 밀려나 기형적인 흉터로 남거나, 형체를 알 수 없는 짙은 노이즈로 뭉개진다 해도 이제는 괜찮을 것 같았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틈새를 증명하는 건 결점 없이 박제된 선명한 픽셀이 아니라, 빗물처럼 섞이고 젖어들며 서서히 흐려지는 이 불완전한 궤적 그 자체일지도 모르니까.

나는 액정을 닮은 잿빛 하늘을 한 번 올려다본 뒤, 묵묵히 비탈길 아래로 걸음을 옮겼다. 어떤 데이터도 기입되지 않은 이름 없는 풍경의 일부가 되어, 완벽한 미상의 시간 속으로 기꺼이 걸어 들어갔다.